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SEUL 2011 3*22-4*17
FESTIVAL BO*M

페스티벌 봄 2011
 국제다원예술축제
 2011년 3월 22일 ~ 4월 17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극단 소극장 판
 서강대학교 메리홀
 아르코예술극장
 문태예술공장
 씨네코드 선재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84 지하1층
 종로구 원서동 4-61
 을지로3가역 5번 출구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KT&G 상상마당까지
 스페이스 '꿀'

페스티벌 봄은 연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 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실험적 창작 예술제로서 매년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다원 예술 축제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페스티벌 봄 2011'은 국내외 23개의 다원 예술 작품들로 27일 동안 서울에서 펼쳐진다. 페스티벌 봄은 '새로운 시도와 형식'을 발굴하고 제작하며 전파하는 역동적인 현대 예술제로서, 한국을 21세기 현대 예술의 중심점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Festival Bo:m 2011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2 March - 17 April 2011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National Theater Company NTC Studio Pan
 Sogang University Mary Hall
 Arko Arts Theater
 Seoul Art Space Mullae
 CineCode Sonje
 B1 14-84 Mullae-dong 2-ga
 Youngdeungpo-gu
 4-61 Wonsuh-dong Jongno-gu
 Euljiro 3-ga Subway Station Exit 5
 From Hongik Univ. Subway Station Exit 2
 to KT&G Sangsangmadang
 Space ggu11

Festival Bo:m is an annual international festival of interdisciplinary arts which presents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As an experimental art festival, Festival Bo:m bases itself on the creative interactions between all genres of contemporary art such as contemporary dance, theatre, fine art, music, film and performance. Festival Bo:m 2011, the 5th edition of Festival Bo:m, will present 23 domestic and international works of most innovative and avant-garde interdisciplinary art for 27 days in various venues in Seoul. As Korea's leading festival in contemporary art which pioneers, produces and promotes 'new frontiers and forms', Festival Bo:m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Korea as a dynamic platform of contemporary art of the 21st century.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3*22-4*17 3*22-4*17 3*22-4*17 3*22-4*17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3*22-4*17 3*22-4*17 3*22-4*17 3*22-4*17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SEOU 2011
 3*22-4*17 3*22-4*17 3*22-4*17 3*22-4*17

페스티벌 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합니다. 문화예술이 삶의 저변에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그 감동이 가득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써 온 서울문화재단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11 페스티벌 봄의 성장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페스티벌 봄은 최근 가장 혁신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함과 동시에, 젊고 창의적인 작가를 지원하고 국제적 예술교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한국 공연예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극, 무용, 퍼포먼스, 영상,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23개의 다원예술 작품들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초청된다고 합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2011년 페스티벌 봄을 통해 현대 예술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리라 믿습니다. 국립극단 백성희장민오극장, 국립극단 소극장 판, 서강대학교 메리홀, 아르코 예술극장 등을 비롯하여 특히 올해에는 극장을 벗어난 여러 작품들이 종로구 원서동, 을지로 세운상가, 홍대입구 부근 등 서울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봄이면 관객들과 공연, 시각예술 관계자들을 설레게 해 온 페스티벌 봄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도 그 동안 보여주었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지속적인 진보와 성장으로 페스티벌 봄이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 현대 예술의 중심적 축제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안호상

2011년 봄,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서울 각지에서 펼쳐지는 페스티벌 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페스티벌을 위해 애쓰신 스태프 여러분들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한국 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창조적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전세계 현대예술의 흐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내외 다원예술작품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온 페스티벌 봄에서 관객 여러분들은 올해에도 한국 공연예술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자극하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식과 태도, 독창적인 예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23개의 작품들을 통해 약 한달 간 서울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2011 페스티벌 봄의 무한한 성공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페스티벌 봄의 비전을 꽃피우며 아시아 현대예술을 이끄는 중심적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오광수

르네 폴레슈 〈연혹의 사회적 맥락이며,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6	바르바라 마티예비치 & 주세페 치코 〈나는 1984〉 14	임민욱 〈불의 절벽〉 22	파드미니 체투 〈아름다운 것 2〉 30	에롤 모리스 〈작전 규정〉 38	카르포 고디나 〈카르포 고디나 단편전: 1970-1972〉 46
베를린 〈태그피쉬〉 8	김지선 〈스탁스 3. 이주민 이주〉 16	와엘 샤키 〈십자군 카바레: 호러쇼 파일〉 24	한스-페터 리처 〈웃는 소를 기다리며〉 32	클레먼스 폰 베데메이어 〈반대편으로부터〉 40	줄리 응게미 & 울라 시클 〈줄리〉 48
김황 〈모두를 위한 피자〉 10	크리스토프 슈링엔지프 〈크리스토프 슈링엔지프 회고전 5편〉 18	자비에 르 루와 〈다른 상상의 산물〉 26	디특 플라이쉬만 〈나의 패션쇼〉 34	김윤진 〈구룡동 판타지 - 신화재건 프로젝트〉 42	홍성민 〈엑스트라스〉 50
토시키 오카다 / 첼피쉬 〈핫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 12	코르넬 몬드루초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 20	어어부 프로젝트 〈탐정명 나그네의 기록〉 28	서연석 〈에테로토피아〉 36	빌리 도르너 〈KT&G상상_도시 표류〉 44	

René Pollesch <i>Here's Looking at You, Social Context of Delusion!</i> 6	Barbara Matijević & Giuseppe Chico <i>I am 1984</i> 14	Minouk Lim <i>FireCliff</i> 22	Padmini Chettur <i>Beautiful Thing 2 (work-in-progress)</i> 30	Errol Morris <i>Standard Operating Procedure</i> 38	Karpo Godina <i>Karpo Godina's Short Films: 1970-1972</i> 46
Berlin <i>Tagfish</i> 8	Ji-Sun Kim <i>Stocks 3. Immigrant Migration</i> 16	Wael Shawky <i>Cabaret Crusades: The Horror Show File</i> 24	Hans-Peter Litscher <i>Waiting for the Laughing Cow</i> 32	Clemens von Wedemeyer <i>From the Opposite Side</i> 40	Jolie Ngemi & Ula Sickle <i>Jolie (work-in-progress)</i> 48
Hwang Kim <i>Pizzas for the People</i> 10	Christoph Schlingensiefel <i>A Retrospective: Five Films by Schlingensiefel</i> 18	Xavier Le Roy <i>Product of Other Circumstances</i> 26	Dirk Fleischmann <i>My Fashion Show</i> 34	Yoon-Jin Kim <i>Guryong Fantasy - Resurrection of Myth</i> 42	Sungmin Hong <i>EXTRAS</i> 50
Toshiki Okada / chelfitsch <i>Hot Pepper, Air Conditioner, and the Farewell Speech</i> 12	Kornél Mundruczó <i>The Frankenstein Project</i> 20	UHUHBOO Project <i>Detective ID, Record of a Vagabond</i> 28	Hyun-Suk Seo <i>Heterotopia</i> 36	Willi Dorner <i>Urbandrifting with KT&G</i> 44	

부대 행사
52

크레딧
54

Events
52

Credits
54

공연 일정
56

티켓 정보
58

장소
60

Schedule
56

Tickets
58

Venues
60

르네 폴레슈

《연혹의 사회적 맥락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3.22 [화] /
3.23 [수], 8pm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90분

2002년 독일 최고의 연극인으로 선정된 연출가 르네 폴레슈의 열정적인 텍스트를 독일 최고의 배우로 평가 받는 파비안 힌리히스(Fabian Hinrichs)가 무대화한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명대사를 차용한 제목의 이 흥겹고도 날카로운 일인극은 신체극과 랙처퍼포먼스의 간극을 절묘하게 횡단하며 오늘날 국제금융위기의 기만적 실체를 직시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무대를 좁게 만드는 인리히스의 정열과 지예, 괴성과 궤변은 강렬한 에너지로 관객을 휘감으며 재연을 넘어서는 독특한 연극 언어를 싣는다. 이 개성 넘치는 광대-강연자를 통해 경제적 현실에 대한 예안은 연극 형식에 대한 폭발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변역의 가능성은 무대에서 시작한다.

“국제금융위기의 주체들은 무얼 하는가? 금융시장의 위기는 짜증스런 혼란을 야기했다는데 나의 몸은 아직도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니! 금융위기는 정체성의 오해가 만든 혼란스런 코미디다. 하지만 무엇을 오해했다는 것인가? 아무 것도 없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은 자기 지시적인 소통에 근거를 둔다. 가격은 상품이 아니라 다른 가격을 지시하며, 이것은 결국 세계의 재연이 아니라 일종의 탈-재연이 된다. 활동성과 금융주의, 실제 가치와 어구적 가치의 차이는 무용애진다. 주체의 안에서 비극은 믿음과 현실, 두 극단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 둘은 동시에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간다.” [르네 폴레슈]

René Pollesch

*Here's Looking at You,
Social Context of Delusion!*

3.22 [Tue] /
3.23 [Wed], 8pm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90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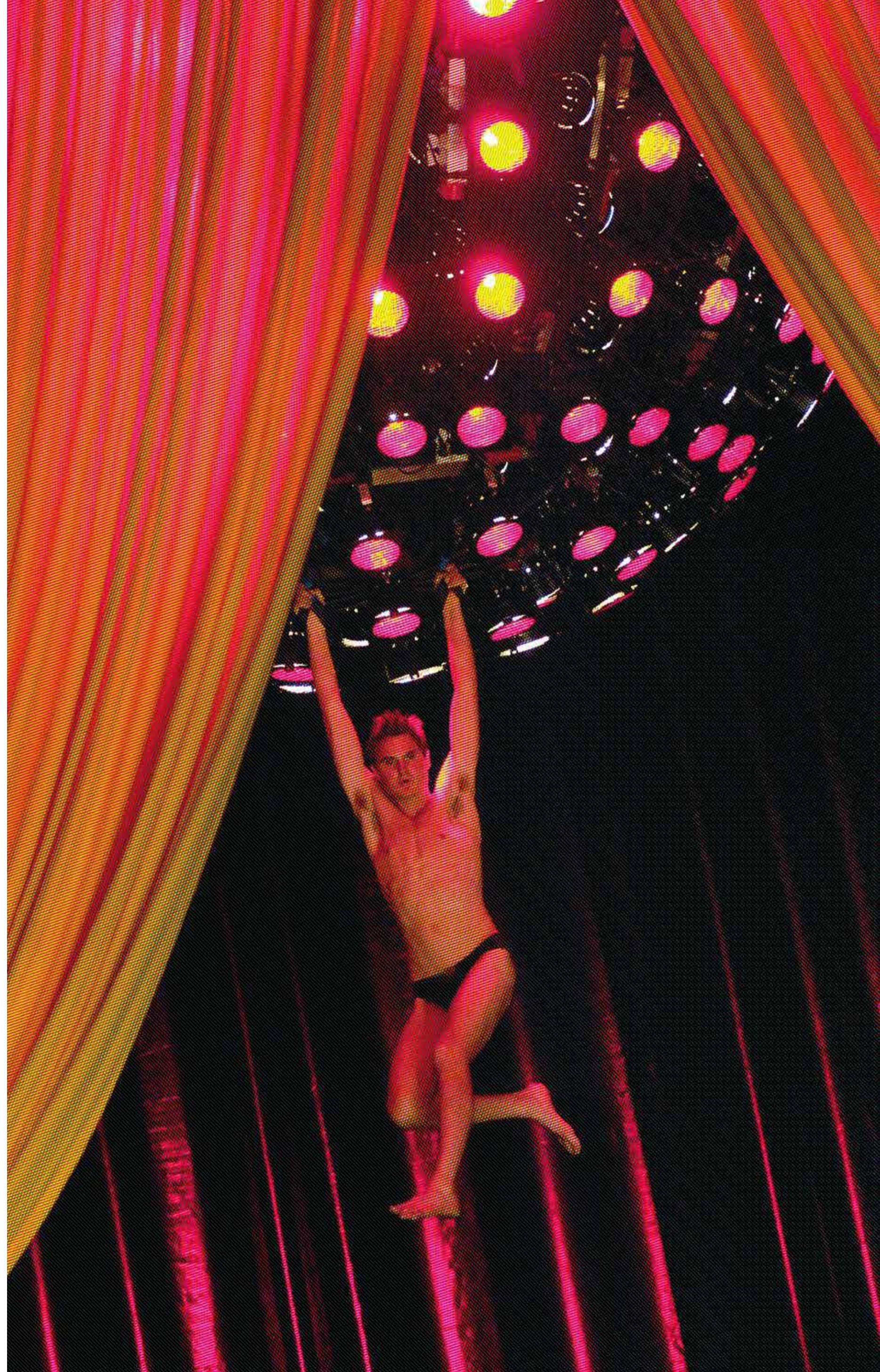
The crisis in the financial markets has triggered irrational turbulence and my body is still not aware of the disaster! In fact, there is nothing but passiveness or asceticism. The financial crisis is a turbulent comedy of mistaken identity. But what has been mistaken then? There is nothing there! The engine of the capitalist economy is based on self-referring communication. Prices do not refer to goods, but to other prices, which ultimately leads to de-presentation of the world.
[René Pollesch]

Production of Volksbühne
am Rosa-Luxemburg-Platz
*Ich schau dir in die Augen,
gesellschaftlicher
Verblendungszusammenhang!*

TEXT AND DIRECTOR
René Pollesch
STAGE AND COSTUMES
Bert Neumann
LICHT-DESIGN
Frank Novak
DRAMATURGUE
Aenne Quiñones
WITH
Fabian Hinrichs
PREMIERE
13 January 2010, Berlin
TRANSLATION
Suok Ham



Photo © Thomas Aurin



CONCEPT
Berlin
[Bart Baele and Yves Degryse]
WITH
Hans-Jürgen Best,
Christoph Finger, Rolf Heyer,
Wolfgang Kintscher,
Kaspar Kraemer, Thomas
Rempen, the Consolidation
choir, Kostas Mitsalis
RESEARCH
Berlin
PRODUCTION MANAGEMENT
Natalie Schrauwen
PHOTOGRAPHY
Bart Baele
INTERVIEWS
Yves Degryse
EDITING
Bart Baele, Ceert De
Vleeschauwer
SOUNDTRACK AND MIXING
Peter Van Laerhoven
SOUND RECORDING
Tom De With, Maarten
Moesen, Dimitry De Cock,
Bas de Caluwé
SCENERY AND TECHNICAL
COORDINATION
Linde Raedschelders
VIDEOSYSTEM AND CHAIRS
Manu Siebens, Fisheye
COSTUMES
Kristin van der Weken and
Kim Troubleyn
ASSISTANCE
POSTPRODUCTION
Frank Lanssen
SKETCHES HOTEL
Kim Troubleyn
CONSTRUCTION SET
Workshops of Schauspielhaus
Essen, Théâtre royal de la
Monnaie, Babs Boey, Anne
Heyman
TECHNICAL SUPPORT
Lilith Tremmery,
Jeroen Wuyts

ASSISTANCE DEVELOPMENT
CHAIRS
Herman Venderickx,
Dajo Peeters, Joris Festjens
CATERING
Kim Troubleyn
BUSINESS MANAGEMENT
Kurt Lannoye
PRODUCTION
Berlin
COPRODUCTION
Theater der Welt [Mülheim,
DE], STUK [Leuven, BE],
Festival TEMPS D'IMAGES
2010, La Ferme du Buisson
[Scène Nationale de Marne-
la-Vallée, FR], Wiener
Festwochen [Vienna, AT]
TRANSLATION
Hwa Yeon Cho, Rani Gillioz
With support of the Flemish
Government / Berlin is
artist-in-residence in
Kunstencentrum STUK
[Leuven, BE]

극단 베를린의 이 냉소적인 ‘다큐멘터리 연극’ 신작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건축가, 도시계획가, 유네스코 위원, 교수, 기자, 배우, 그리고 아랍의 투자가가 영상 이미지의 형태로 한 테이블에 모인다. 이들이 참여하는 게임은 버려진 산업지역이자 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출페라인(Zollverein)의 재개발 프로젝트다. 실제로 추진된 도시계획이 영원한 포커 게임의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은 왜일까?

‘태그피쉬’는 포커 용어로, 룰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무모한 플레이를 하여 다른 플레이어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속을 알 수 없는 테이블의 플레이어들 중 ‘태그피쉬’는 누구일까?

확장 회의도, 채팅도 아닌 이 기이한 소통의 장은 극단 베를린의 치밀한 다채널 영상 설치로 재구성된 가상적인 대화다. 인터뷰로부터 재구성된 영상은 무대 장치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신비롭고도 작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긴박한 질문들을 꼼꼼히 훑어나간다.

실제로 추진되었던 야심 찬 출페라인 재개발 계획은 이 황량한 지역을 유럽의 새로운 중심점으로 만들고 옛 명성을 복원하려는 야무진 꿈이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개발되기로 한 장소는 계속 황무지로만 남아 있는 것일까? 답답함의 실체를 간파할 만한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으나, 맴도는 대화는 개발되지 않는 황무지만큼이나 막막하다. 비어 있는 아랍 투자가 하니 야마니의 스크린/의자에 주인이 나타날길 기다려 본다.

Photo © the artist





김광

〈모두를 위한 피자〉

4.10 [일], 5pm

60분

Hwang Kim

*Pizzas
for the People*

4.10 [Sun], 5pm

60 min.

4.11 [월], 8pm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4.11 [Mon], 8pm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2008년 12월, 평양에 북한 최초의 피자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이 피자 레스토랑은 고위 공산당 간부가 아닌 일반 인민들은 돈이 있어도 갈수 없는,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문화봉쇄 정책의 표본이다. 정체성을 지닌다는 명목 하에 철저히 지켜지는 문화적 소통의 단절에 도전하고자 〈모두를 위한 피자〉 제작팀은 ‘피자 만들어 먹기’, ‘크리스마스 즐기기’, ‘해의 여행 갈 때 가방 싸기’ 등 북한 인민들에게 어락되지 않지만 기록권 층은 누리는 행위들을 즐기는 방법을 알리는 데모 영상을 제작하였다.

두 젊은 북한 남년의 조그마한 사랑 이야기로 구성된 이 짧은 유튜브 영상의 영상들은 북한 암시장의 불법 한국 드라마 배포 루트를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배포 되었다. 그 후 약 6개월 동안 제작진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진, 메모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그들은 김광의 동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선전인가, 아니면 우호적인 제스처인가? 여러 장르를 혼합한 설치 퍼포먼스 〈모두를 위한 피자〉는 이 질문들의 복잡한 함의를 탐구한다. [김광]

In 2008, the first pizza restaurant in North Korea opened exclusively for the families of Kim Jong-il. Challenging this contradictory cultural enclosurement, Hwang Kim made a video demonstrating how to make a pizza and distributed to North Koreans through illegal routes. Now it has been getting feedback in photographs and notes for 6 months. How are they accepting Kim's video? Is it a politically subversive propaganda or a favorable gesture? The installation/performance *Pizzas for the People* explores the complex implications of these questions.

Photo © Hyun Kyu Shin

CAST
Yong Ha: Sang Yuep Yuk
In Kyong: Hee Jung Park

STAFF:
PRODUCED, DIRECTED BY
Hwang Kim
SCREENPLAY
Ji Sun Lee
FILM SHOOTING
Hyun Kyu Shin
DOCUMENTARY FILMING
Seoul: Woo Sung Jeon
Dandong: Hwe Won Kim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핫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

3.24 [목] /
3.25 [금], 8pm
3.26 [토], 3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오극장

70분

일본 연극의 새로운 파격을 선도하는 토시키 오카다가 사회 현실의 부조리를 채취하는 연장은 지금이 평범한 일상이다. 오카다가 말하는 ‘극사실주의’는 개인의 초심함이 무기력하게 표출되는 순간에서 사초함의 작은 파장을 포착한다. 어정쩡함이나 머뭇거림, 손이나 다리를 어색하게 비비는 동작 등 무의미하고 무심한 몸짓들이 어눌하게 반복되며, 부자연스러운 반복은 신체를 정형화하는 형식이 된다.

‘selfish’의 유아적인 발음을 극단의 이름으로 삼았듯, 오카다가 이끄는 극단의 구심점은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이다. 그들이 그려내는 미시적인 세계에서,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은 라디오 뉴스의 무의미한 소음으로 축소되고, 개인의 존재감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권력은 배경으로 묻힐 뿐, 주인공들은 무감각함을 유지하기만 한다. 자초나 냉소에도 미치지 않는 무지는 거부의 한 형태가 된다.

한 임시직 여직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되는 과정을 그린 〈핫페퍼, 에어컨, 그리고 고별사〉에서 오카다는 상이한 두 신체적 요소들을 재질로 삼는다. 연기로서의 제스처와 배경음악에 대한 신체 반응이 그것이다. 이 둘간의 긴장은 긴박하고도 어두운 비언어의 영역을 파생시킨다.

오카다는 일본 사회의 현실에 대한 거시적인 비판 의식을 혼계적으로 들이밀지는 않는다. 사초함을 관통하는 예리한 통찰은 관객의 몫이다.

Hot Pepper, Air Conditioner,
and the Farewell Speech

3.24 [Thu] /
3.25 [Fri], 8pm
3.26 [Sat],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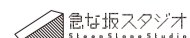
70 min.

It is the extremely ordinary everyday situations where Toshiki Okada catches the absurd reality of the society. What Okada calls ‘super-realism’ delicately captures the passionless outbursts of an individual’s timidity. The repetition of meaningless gestures of hesitation, clumsiness, detachment and awkwardness become the standardized forms for the body. We see a tension between two different kinds of physicality: gestures as acting and physical responses to the background music.

PLAYWRITE AND DIRECTION
Toshiki Okada
PERFORMERS
Riki Takeda, Mari Ando, Saho Ito, Kei Namba, Fumie Yokoo, Makoto Yazawa
STAGE MANAGER
Koro Suzuki, Ayumu Okubo
LIGHTING DIRECTOR
Tomomi Ohira
SOUND DIRECTOR
Norimasa Ushikawa
PRODUCER
Akane Nakamura
PRODUCTION MANAGER
Tamiko Ouki
PRODUCTION
chelfitsch, Tokyo
COPRODUCTION
Hebbel am Ufer/HAU, Berlin
ASSOCIATE PRODUCTION
precoq, Tokyo
TRANSLATION
Kwang Hyun Um
SUPPORTED BY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in the fiscal 2011,
The Saison Foundation
SPECIAL THANKS
Steep Slope Studio



THE SAISON FOUNDATION



急坂スタジオ



바르바라 마티예비치 & 주세페 치코

나는 1984

4.16 [토], 5pm
4.17 [일], 3pm
국립극단 소극장 판

45분

특정 한 하나의 연도는 어떤 형태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기억의 메커니즘은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가?

《나는 1984》에서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마티예비치는 기억 속의 미국의 단상들에 크로아티아 공산주의 역사와 자전적 일화들을 투영하며 '1984년'을 관통하는 "여위 과학적" 진실을 규명한다. 여기에 SF, 영화, 3D 애니메이션,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의 가상현실이 가미되며 기억을 장악하는 거대한 질서를 그려낸다.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가장 내밀한 불안과 욕망까지 정복해가는 총체적인 의명의 구조가 그것이다.

‘과거’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개인은 거대한 의명의 구조의 폭력적 권력에 노출된 연약한 개체다. 산발적인 일화와 기호들을 조합하고 그로부터 거대한 질서를 이끌어내는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은 개성과 주체성의 상실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에 종속되지 않는 수천 개의 이야기들은 다양한 창조력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획일화된 세계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저마다의 방식은 존재할 수 있는 걸까? 마티예비치는 개성과 주체성을 회복하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을까?

Barbara Matijević & Giuseppe Chico

I am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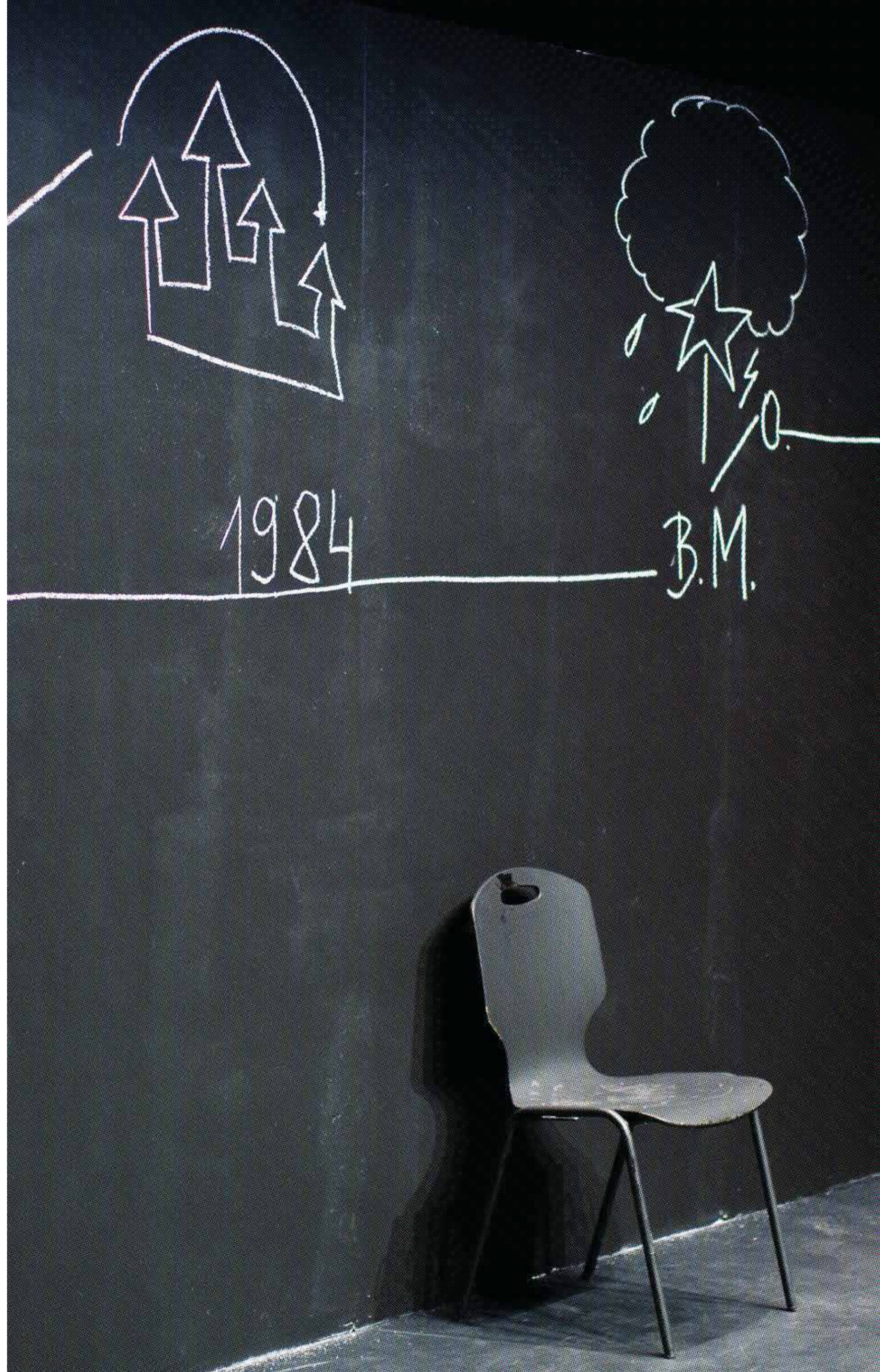
4.16 [Sat], 5pm
4.17 [Sun], 3pm
National Theater Company
NTC Studio Pan

45 min.

I am 1984 is a pseudo-scientific journey through the year of 1984. Weaving together events from national and world history as well as images of popular culture, the Croatian storyteller offers a penetrating perspective on various realities, or rather various levels of fiction.

AUTHORS
Giuseppe Chico and
Barbara Matijević
PERFORMER
Barbara Matijević
PRODUCTION
De facto and 1er Stratagème
CO-PRODUCTION
ZeKaem (Zagreb, Croatia)
PRODUCTION AND
TOUR CONTACT
Rostan Chentouf
(rostan1@hotmail.fr)
TRANSLATION
Haeju Kim

Photo © Julien Correc



‘범아시아국제회의(Pan-Asiatic International Conference)’는 서울 본부를 거점으로 뭄바이와 방콕을 거쳐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기자회견이다. 이 회의의 창설자이자 유일한 회원인 김지선은 자신, 아니 PAIC가 발행한 기자회견을 지닌 채 인도에 파견되어 웹과 기자회견,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취재 활동을 벌인다.

발 없는 유령이 천리 간다.

견고한 자본주의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경계의 지점들, 그곳에서 일어나는 비합법적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위치 등을 재발굴하는 이 수행적 작업에서, 작가는 뉴스, 광고 등의 미디어 시스템과

개인적 경험 간의 간극을 오가며 오늘날 유통되는 장소와 소통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 체제의 견고함 속에서 드러나는 균열의 장소들. 누가 그곳을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방관자임을 자처하는 당사자로서.

작가 김지선은 소소한 교란적 변조를 통해 거창한 정치적 현실에 가상적인 균열을 만드는 행위들을 말없이 수행해오고 있다.

Pan-Asiatic International Conference (PAIC) is an emerging organization of journalists committed to investigating the political aspects of economy in Asian countries. Based in Seoul and branched out to Mumbai and Bangkok, PAIC houses on-line and off-line forums for journalists. Ji-Sun Kim, the president and only member of PAIC, is also the artist who created *Stocks 3. Immigrant Migration*. The solitary artist in disguise takes a full advantage of her privileged membership to investigate currency discrepancies and labor problems in India.

Photo © the artist



〈크리스토프 슐링엔지프 회고전 5편〉

4.14 [목], 7/8:45pm
4.15 [금], 7/8:20/9:45pm
4.16 [토], 1/2:45pm
4.17 [일], 1/2:20/3:45pm
씨네코드 선제

슐링엔지프는 독립 실험영화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연극, 오페라, 연기, 설치미술, 토크쇼 등으로 작가적 세계를 확장해왔다. 〈파르지팔〉의 파격적인 해석 등 그의 거침없는 작품들은 매년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의 독일 파빌리온 디자이너로 위촉되기까지 방대한 영역에 걸쳐 독특하고 경이로운 소통의 장을 이어 왔다.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영향을 받은 그의 영화는 반복될 수 없는 고유한 사건을 가장 직접적으로 포착하며, 특히 20세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적인 자기 인식과 역사 의식에 대한 통렬한 비판적 관점을 담은 ‘독일 3부작’은 그의 최고작으로 평가된다.

에고마니아 Egomania 84 min.
1986
분명한 내러티브보다는 강한 이미지를 통해 구원하는 힘과 파괴적인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무의식을 그려냈다. 적막한 심에 사는 뱀파이어, 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사랑 등 신화적인 캐릭터들을 강렬한 음악과 이미지와 함께 결합하였다.

100년 동안의 히틀러 100 Years of Adolf Hitler 60 min.
1989
20세기 독일의 역사인식, 독일사회에 대한 자기인식을 다룬 독일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 히틀러가 죽기 전 병커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그린 슐링엔지프의 대표작.

독일 전기톱 살인사건 The German Chainsaw Massacre 63 min.
1990
독일 3부작의 두 번째 작품. 독일통일의 단기적인 정치변화를 유머러스하게 다루었다. 통일이 된 후 서독으로 눌러앉다가, 미치광이 서독 가족에게 전기톱으로 학살당하는 동독인들의 이야기이다.

테러 2000 Terror 2000 79 min.
1992
독일 3부작 중 마지막 작품. 1970년대 독일적군파(RAF)에 대한 공포를 주제로 현대 독일의 네오 나치즘과 제노포비아를 풍자하는 코미디이다. 폴란드 이민자 담당 사회복지사의 납치사건을 조사하려는 부부들이 겪게 되는 ‘독일 광증의 연대기’.

아프리카의 쌍둥이타워 African Twintowers 79 min.
2008
유작이 된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아프리카 대륙에 관한 연대판 〈니벨룽겐의 반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18대의 모니터로 보여질 예정이다.

A Retrospective: Five Films by
Schlingensief

4.14 [Thu], 7/8:45pm
4.15 [Fri], 7/8:20/9:45pm
4.16 [Sat], 1/2:45pm
4.17 [Sun], 1/2:20/3:45pm
CineCode Sonje

Artist for German Pavilion of Venice Biennale 2011, Schlingensief has addressed many issues through his controversial films. Incorporating the styles of conventional narrative cinema as well as the German New Wave, the late legend left behind legacies of direct critical views on German history and society. In this retrospective, five works will be presented, including the famous German Trilogy and African Twintowers.

PRODUCTION
Kinoverleih
DVD LABEL
GmbH & Co.KC
TRANSLATION
Jin-Hee Park, Yun-An Jeon,
Yeon-Su Shim

Courtesy of Filmgalerie 451





코르넬 문드루초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

4.8 [금], 8pm 135분
 4.9 [토], 2pm, 7pm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84 지하1층

Kornél Mundruczó *The Frankenstein Project*

4.8 [Fri], 8pm 135 min.
 4.9 [Sat], 2pm, 7pm
 B1 14-84
 Mullae-dong 2-ga
 Youngdeungpo-gu

〈프랑켄슈타인〉을 연극으로 옮기기 위한 캐스팅에 관객이 초대된다. 예비 배우들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이함과 괴팍함은 모두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왜 ‘괴물’을 만드는가? 관객이 방관해야 하는 괴물의 메커니즘은 어구와 현실의 묘연한 경계를 따라 작동하며 정교한 연극적 유리에 이른다.

‘정상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의 일탈이 없이는 그 합리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정상성’이 아닌가? 우리는 무엇가에 부합되는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서 괴물, 악마, 비정상인, 일탈자들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상성’은 내면의 울타리를 성립시키기 위해 탄생하는 부수물이다.

우리가 추방한 괴물을 일상에서 대면하는 일은 드물다. 사회는 내면으로부터의 ‘불청객’들을 보호시설 속에, 개인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 가둬놓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 프로젝트〉는 무의식 속의 보호시설로의 고통스런 여정이다. 괴물의 저항을 받아들이는 제식이다. 신중하게 걸어놓은 자물쇠가 열리고, 우리는 적대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부러움과 두려움의 결합이 바로 파시즘 확산의 본질이다. 나의 의도는 관객들이 이 과정을 아주 사실적인 방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이 질문을 지적인 면에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정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우리는 놀라움에서 오는 호기심, 그리고 괴물에 대한 부정을 겪으며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코르넬 문드루초]

Photo © Máttyás Erdély

We are invited to a cozy container where an audition for the role of Frankenstein’s monstrous creation takes place. In this dangerous fictive game bordering on reality, *Frankenstein Project* unmasks the inner evil within us. To what extent do we allow ourselves to be influenced by the invisible hand of normality? Why do we create our ‘monsters’?

PRODUCTION



SUPPORTERS



ACTORS
 Andrea Spolarics, Roland Rába, Kata Weber, Miklós Székely B., Sándor Terhes, Natasa Stork, Zsolt Nagy, Ágota Kiss
 SET DESIGN, COSTUME
 Márton Ágh
 DRAMATURG
 Viktória Petrányi
 ASSISTANT DIRECTOR/
 PRODUCTION MANAGER
 Dóra Büki
 DIRECTOR
 Kornél Mundruczó
 TRANSLATION
 SunMi Oh, Jiwon Le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o be confirmed

〈불의 절벽〉은 사운드와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장소 특정적 기억을 새롭게 조명하고 체험으로 이끌어내는 임민욱의 공연 프로젝트이다. 〈불의 절벽 1〉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200년이 넘는 담배공장이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하는 곳에서 펼쳤고 이제 서울의 기무사 수송대 차고였던 곳이 국립극단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이어진다.

비디오 작품 〈손의 무게〉에서부터 어둠을 표현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작가는 열감지 카메라를 활용하여 온도로 나타나는 존재들을 그린다. 임민욱에게 어둠은 빛의 유무가 아니라 무게이자 온도로 나타나는 존재이다.

〈불의 절벽 2〉는 렘브란트 말년의 그림 〈제육시스로서의 자화상〉과 고문 피해자 모임의 이야기 치료를 모티브와 형식으로 삼고 있다. 이제 연극 무대에서 각본대로 자백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이 공간의 기억을 새로운 각본으로 질문한다. 무대 위 열감지 카메라가 실시간 투사하는 스크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보게 될까. 임민욱이 표현하는 어둠, 만질 수 있는 비전이란 무엇인가.

FireCliff projects a unique perspective toward site-specific memories and brings them out into the form of experiences using a thermal camera and sound. FireCliff 1 was presented at La Tabacalera in Madrid, to be transformed into National Art Center. Now it extends itself further at a place used by the security command. To Lim, darkness is not determined by the presence of light, but manifests itself in weight and temperature. What is it that we see in the real-time projection by the thermal camera? What is darkness and tactile vision she presents to us?

DIRECTOR
Minouk Lim
CAST
Tae-ryong Kim, Hye-shin Jung
THERMAL CAMERA
Hong-yeol Park
CINEMATOGRAPHY
Yun-jung Ji
MUSIC
Nam-youn Kim, Ki-wan Sung
VJ-INC
Kwon Lee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Photo © the artist



〈십자군 카바레: 호러쇼 파일〉

4.3 [일] /
4.10 [일], 11am
씨네코드 선제

아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군 전쟁은 어떤
의미인가? 역사는 어떻게 스스로를 써 왔는가?

33분

토리노 루피에 보관된 200년 된 목각인형을 활용한
이 작품에서 이집트의 비디오 아티스트 와엘 샤키는
냉소가 섞인 초현실적이고도 신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날 내포하는 의미를
추적한다.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와 2009년 아르두바이에
초청되었던 이집트 출신의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연출가인 와엘 샤키는 아랍 세계와 서구의 관계를
중심에서부터 뒤흔들며 중요한 역사를 재고한다.
1986년 아민 말루프 (Amin Maalouf) 가 쓴
«아랍의 눈으로 본 십자군» (The Crusades
Through Arab Eyes) 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이 영화는 십자군의 침략을 마주해야 했던 이의
시선을 통해 사건들을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도출된 추상적인 컴퓨터 배경 속에서
역사의 목각 주인공들은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의
의지를 멋대로 수행한다.

Wael Shawky

*Cabaret Crusades:
The Horror Show 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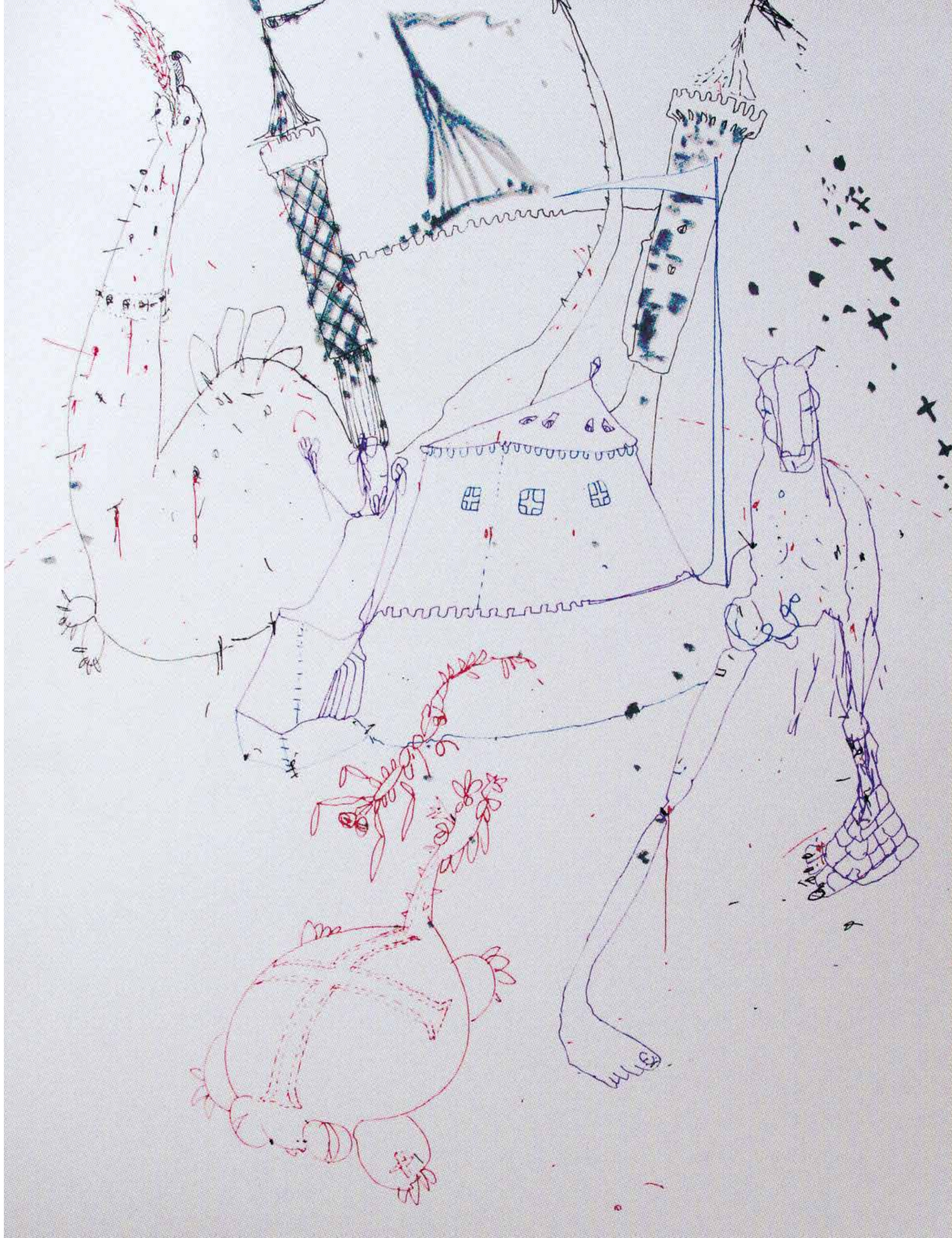
4.3 [Sun] /
4.10 [Sun], 11am
CineCode Sonje

Inspired by 'The Crusades through Arab
Eyes' by Amin Maalouf, *Cabaret Crusades:
The Horror Show File* reconstructs and
reinterprets the history of the crusades
in the form of images. The 200-year-
old marionettes bring a contemporary
and international reinterpretation of
history through surreal and mythical
atmosphere that blends drama and
cynicism.

33 min.

CONCEPT/DIRECTOR
Wael Shawky
PRODUCTION
Cittadellarte Fondazione
Pistoletto Biella,
Theater der Welt 2010
TRANSLATION
Jiwon Lee

Photo © the artist



4.1 [금], 8pm
4.2 [토], 4pm
국립극단
백성희장민오극장

120분

르 루와는 '부토'라는 생소한 무용 형식에 신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 특별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한다. 인터넷, 책, 기억, 일화 등 누구든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취합, 애독하는 것이다. 지극히 사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예술 형식은 어떻게 '체화'될 수 있을까?

동료 안무가 보리스 샤르마트와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르 루와는 자신이 수년 전 무심코 내뱉었던 장담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혼자 '부토'를 체득하는 것이다. 그가 택한 훈련법은 남은 시간에 짬짬이 수집한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순수한 '아마추어' 작품이다.

지극히 사적이고 제한된 '상황'에서 하나의 예술 형식은 어떻게 '체화'될 수 있을까? 르 루와는 전문적인 부토 무용수로서 완숙한 결과를 보여주는 대신, 비전문적인 탐구자로서의 사적인 여정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다른 상황의 산물〉은 문화적, 예술적 차이를 이해하는 신체의 일상적 방법론에 관한 스토리텔링이다.

4.1 [Fri], 8pm
4.2 [Sat], 4pm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120 min.

The materials that Xavier Le Roy relies on to teach himself Butoh is precisely what may betray the Japanese training method: internet and books. The conceptual choreographer's discipline for this deceptively casual project is circumstantial rather than orthodox. Incorporating his own memories and anecdotes, Le Roy reinvents a form that reveals its very process.

FROM AND BY
Xavier Le Roy
PRODUCTION
Le Kwatt
COPRODUCTION
Le musée de la danse -
Rennes
THANKS TO
Boris Charmatz,
PAF (Performing Arts Forum)
INTERPRETATION
Kathy Kyungho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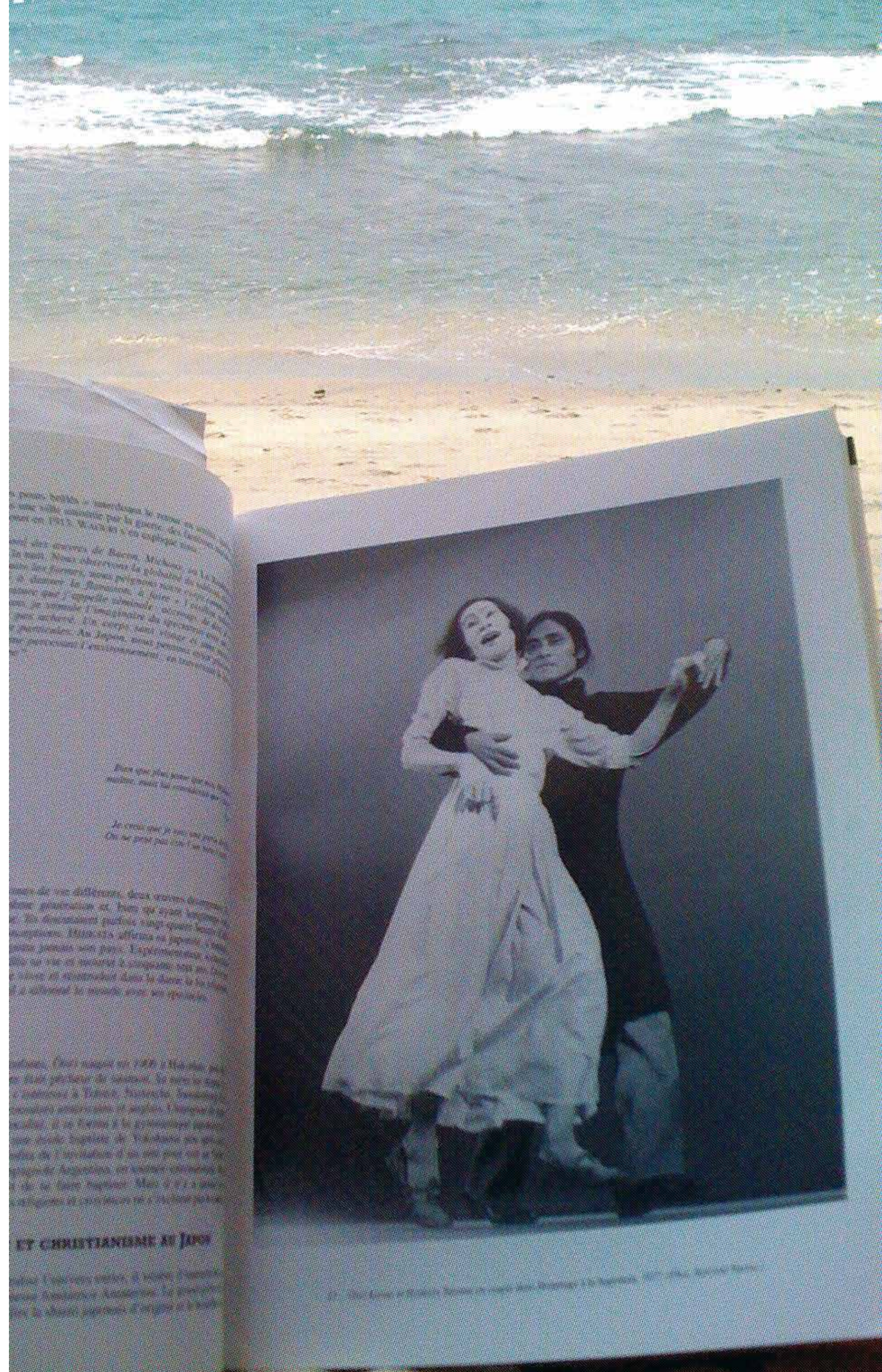


Photo © the artist

백연진(보컬, 작사, 작곡, 프로듀서)과 장영규(베이스, 작곡, 편곡, 프로듀서)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어어부 프로젝트는 1990년대 이후 전위적인 사그-태도-실천으로서의 예술행위를 팝 뮤직의 어법으로 풀어냄으로써 한국 음악의 새 장을 열었다. 이들은 1997년 〈손익분기점〉으로 데뷔한 후 특유의 어어부식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를 구축한 바 있다.

미니멀, 뽕작, 록, 전자음악, 낭독, 앰비언트 사운드 등 각종 음악적 장르, 음향적 재료들이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을 머금으며 비껴지는 모습은 한국 음악의 새로운 맛을 제조하는 역정이 되어 왔다. 일상의 단상들을 토막 내어 즉물적으로 전시하는 그들의 전략은 우스꽝스럽고도 섬뜩한 현실감을 차갑게 구축한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깨진 드라마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도시와 인간의 부포미한 운명을 폭로하며, 그 배후에 도사림직한 알 수 없는 음모들을 무너뜨린다.

〈탐정명 나그네의 기록〉을 통해 어어부 프로젝트는 더욱 완고하게 숙성된 그들의 음악적 세계를 선보인다. 일거리가 줄어든 어느 탐정의 1년치 일기, 일지, 메모, 낙서를 재구성한 이 야심 찬 프로젝트에서 몽개진 과 기록의 날짜와 시간은 곧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다. 기록된 정확한 시간과 상황들이 결국 우연적 혹은 우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실시간이 갖는 덧없음과 무상함이 어어부 특유의 사운드에 싣려 발산된다. 〈탐정명 나그네의 기록〉은 음악적 나그네로서, 한국 사회의 그늘을 유랑하는 탐정으로서, 어어부가 겪어온 소리 세계의 두터운 흔적들이 펼쳐는 농뿔한 모험담이 될 것이다.

Photo © the artist



“그릇의 사물성은 그를 이루는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싸는 텅 빈에 있다.”
[마틴 하이데거]

신체는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표면들의 체계다. 신체학은 오브제는 실제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력 공간을 변위시킨다. 인도의 현대 무용에 새로운 지향점을 부여하고 있는 안무가 파드미니 체투가 공간의 변위를 위해 출발하는 지점은 단순 명료한 자세들이다.

《아름다운 것 2》는 움직임에 관한 9개의 연구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장은 우리의 시각이 공간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을 시각화한다. 시각적인 미학을 결정하기 위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기하학적 요구이다. 이에 따라 움직임의 가능성들이 한정된다. 이 한계들은 다시 저항의 정치를 정의하기 시작한다. 거의 도상학적인 테퍼런스라고까지 할 수 있는 몸의 명백한 자세들에서 공간을 밀어내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이 작품은 사적인 내러티브와 비-사적인 진실 사이를 끊임없이 종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파드미니 체투]

Padmini Chettur

Beautiful Thing 2
(work-in-progress)

‘The vessel’s thingness does not lie at all in the material of which it consists, but in the void that it holds.’
[Heidegger]

This object in reality does not occupy space but rather displaces it. These postures, almost iconographic in their references,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he possibility of encountering displacement. [Padmini Chettur]

DANCE
Padmini Chettur
LICHT
Jan Maertens
SOUND
Maarten Visser
SCENOGRAPHY
Sumant Jayakrishnan
COSTUME
Padmini Chettur, VIIA-designs
PRODUCTION
Tang Fu-Kuen
COMMISSIONED FOR
the Singapore Arts Festival
CO-PRESENTED BY
Festival Bo:m and
Szene Salzburg

Photo © Sara



본명 박잉란(Park Ing Lot). 일명 ‘비지 버스터(Busy Buster)’. 그는 한국전쟁 중 38선을 두고 누나와 이산가족인 뒤 이후 최근 실종되기까지 냉전의 격동을 몸으로 겪어낸 근대사의 표상이다. 아니, 정말로 그럴까? 그의 믿기지 않는 인생 역경을 추적하기 위해 스위스의 귀짜 개념미술가 한스-페터 리처는 소수의 관객을 창덕궁 근처의 한 외딴 가정집으로 초대한다.

‘거리 탐험가’ 혹은 ‘메아리 수집가’로 알려진 한스-페터 리처에 있어서, 역사는 사소하고 우연하고 돌발적이며 때로는 기이하기도 한 ‘메아리’들의 유기적인 관계 맺음이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작품인 《웃는 소를 기다리며》를 위해서 리처가 작년 가을부터 한국에서 필드리서치를 진행하며 발굴한 근대의 ‘메아리’들은 전후의 고통 속에 잠재된 생동맞은 부조리를 암금양게 드러낸다.

박잉란, 혹은 ‘비지 버스터’의 집에 초대된 한정된 수의 관객들은, 그가 남긴 사소한 물건들과 흔적이 엮어내는 묘묘한 역사의 미로 속으로 들어간다. 진중하면서도 의문스런 안내원 리처가 이끄는 하우스 투어는 두서없는 서사가 되어 한국전쟁 중에 박잉란이 겪은 모험들에 엄청난고도 엉뚱한 상상의 날개를 달아준다.

익살과 궤변, 선문답과 상술을 오가는 리처의 화려하고도 무심한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어느덧 관객은 돌연히 사라진 박잉란의 행방에 대한 막연하고도 진지한 추리의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결국 이 양중맞은 ‘메아리방 놀이’에서 상상과 부재는 기묘하게 교류하고, 역사적 실체는 신기루처럼 먼 지평에서 아른거린다. 아니, ‘진실’이 드러내지 못하는 역사의 실체는 어쩌면 의심스런 아티스트-도슨트의 허허한 너살을 타고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침투해 있을 수도 있다.

Waiting for the Laughing Cow, for which Litscher did field research in Seoul, is a riddle-like echo chamber play that explores the life and times of a certain ‘Busy Buster’ – a.k.a. Park Ing Lot – who lived through Korean War and cold war era. As Litscher reconstructs life story of the missing character in his house, where his scattered belongings offer insights on his incredible adventures and inexplicable disappearance, the historical truth itself becomes an evasive object fused with imagination and absence.

3.25 [금], 7/8/9pm
3.26 [토] / 27 [일], 3/4/5pm
3.28 [월] / 29 [화] / 31 [목] / 4.1 [금], 7/8/9pm
4.2 [토], 3/4/5pm
종로구 원서동 4-61

50분

3.25 [Fri], 7/8/9pm
3.26 [Sat] / 27 [Sun], 3/4/5pm
3.28 [Mon] / 29 [Tue] / 31 [Thu] /
4.1 [Fri], 7/8/9pm
4.2 [Sat], 3/4/5pm
4-61 Wonsuh-dong Jongno-gu

50 min.

The Laughing Cow Foundation Seoul & Festival Bo:m proudly present a limited preview series of guided tours at the Park Ing Lot Museum 4-61 Wonsuh-dong Jongno-gu Seoul by Hans-Peter Litscher, Chief curator of the Park Ing Lot Museum & Secretary general of the Laughing Cow Foundation

INTERPRETATION Kathy Kyunghoo Lee and 1 other



Photo © Park Ing Lot

4.2 [토], 7pm
4.3 [일], 3pm
아르크예술극장
대극장

“나의 패션 산업”이라는 개념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티셔츠를 주문했던 플라이쉬만은 제작된 의상을 패션쇼 형식의 <나의 패션쇼>를 통해 선보인다. 그가 캠퍼스에서 전람하는 것은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에 내포된 정치적, 사회적 함의들, 특히 언론에 의해 포장된 의미들이다. 조명 속의 의상은 생산과정으로부터 소외된 상품의 물신화의 환영을 드러낸다.

디르크 플라이쉬만의 ‘작품’들은 미술품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형태를 취한다. 그것도 다국적 기업의 전략에 가까운 과정을 취한다. 학생 시절이던 1998년 초콜릿 박을 팔면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개념미술, 아니 ‘사업미술’에는 트레이일러 임대, 양계, 태양에너지 생산, 게임 쇼, 가상 부동산 매매 등의 크고 작은 사업이 포함된다. 창출되는 이윤은 언제나 다음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의 매매에서 ‘짹짹한 재미’를 보고, 그 여파로 패션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죽으면 작품이 아니라, 사업으로 얻은 돈을 남기고 싶다”는 플라이쉬만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거대한 체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저항 방식은 그 작동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나의 기업에 존하는 활동들은 일종의 실험이다. 미시적인 모델을 통해 유의적으로 상업적인 거대 조직을 직면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나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과 반감, 모순적 감정 등을 드러낸다. 거대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회의 장들에 대한 통제력을 잠시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잠정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본다.” [디르크 플라이쉬만]

4.2 [Sat], 7pm
4.3 [Sun], 3pm
Arko Arts Theater
Main Hall

The ‘works’ of Dirk Fleischmann take the form of business models, the profit of which is re-invested to the next ones. To Fleischmann, the best way to challenge the given capitalist mega-structures is to operate in the same way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do. After manufacturing T-shirts from Kaesong Industrial Complex, he shows his collection in the form of a fashion show, triggering issues of commodity fetishism and displaying the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RTIST/DIRECTOR
Dirk Fleischmann
CURATOR/
DOCUMENTARY DIRECTOR
Cye-joong Kim
MUSIC/COMPOSITION
Alfred 23 Harth
MODERATOR
Young June Lee
PARTICIPANTS
Sun-Jong Moon,
The Book Society
ASSISTANT CURATOR
Ji-young Kim
DOCUMENTARY
CINEMATOGRAPHY
Ki-won Seo
DOCUMENTARY PLANNING
Hoon Ryu
DOCUMENTARY PRODUCER
Jung-min Choi

SUPPORTED BY
CyeongGi Cultural Foundation



Photo © the artist

“이 공연에 참여한 관객은 예술령거리며 철공소가 가득한 골목길을 쓰다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사-모더니티’의 향수라는 회고적 정서를 낳을지, 혹은 이물감이 도는 낯선 정서를 느낄지는 알 수 없다. 본명한 것은 ‘유토피아의 현실화’라는 프로젝트에 임했던 건축가 김수근의 진실을 찾는, 이 추리적이면서 파편적인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들은 모두 시간 위를 산책한다는 사실이다. 이 공연은 “시간의 빈장이 벗겨져 있다”(헵릿)라는 현대의 명제와 접촉하고 있다.” [김남수]

아득한 기계음, 길에 밴 기름 냄새, 무심코 지나가는 자전거, 어름한 여관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여인...

만적인 일요일 오후의 평범함 속에는 거칠고 생경한 기억의 강이 나른하게 흐른다. 일상과 환상을 넘나드는 과거의 단상들 속에서 고독한 여행자는 역사의 수동적인 독자가 아닌 수행적인 주체가 되어 본다. 우연으로 가장한 골목 안의 여러 표식들은 어렴풋한 시간 속으로 도시의 산책자를 점점 깊이 빨아 들이고, 사멸이 임박한 장소에 대한 자신만의 기억을 만들기 위한 제식을 행하게 한다. 걷는 행위는 곧 쓰는 행위가 된다. 장소특정 참여 퍼포먼스 《에테로토피아》는 이상과 최적이 뒤섞인 낡은 시간 속으로의 소박한 여정이다.

몽환적인 좁은 골목의 골자락에서 돌연 여행자의 시야를 훑고 들어 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하고도 묵묵한 근대의 표상, 세운상가다. 농축된 역사와 시간의 횡포, 건축가의 꿈과 좌절이 혼재하는 이 20세기의 자화상은 곧 방문객의 거울이 된다. 버려진 유토피아에 초대된 시간의 탐험가들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각각의 거대함이다.

Photo © the artist

Heterotopia is a site-specific, participatory performance in the old heart of Seoul. The visitors drift through deserted alleyways while recording their own traces on a cassette tape. The ear-set amplifies the disquieting quietness of the Sunday idleness, or their fragmentary solitude, sporadically interrupted by distant echoes of the city. Walking becomes an act of writing. History relives itself; the seekers of the past turn into quiet storytellers, only to tell stories about the vastness of oblivion.

DIRECTOR
Hyun-Suk Seo
DRAMATURGUE
Ji-Sun Kim
ASSISTANT DIRECTOR
Sang-Chul Ha
PERFORMERS
So-Young Kim, Young-Jin Kim,
Jin-Young Shin, Su-Jin Yu,
Taejun, Won Yuh, Cho-Rong
Ryu, Yeon-Hwa Baik and
others
TECHNICAL DIRECTOR
Young-Jik Cho
DESIGN
Dae-Cun Goh



3.27 [일], 1pm
4.4 [월], 7pm
씨네코드 선제

116분

현대 다큐멘터리의 거성 에롤 모리스의 8번째 장편이 파예치는 곳은 바그다드의 아부 가립 포로수용소이다. 그는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인 수감자들을 학대하는 사진들의 맥락을 탐색하며 사진 프레임 밖의 진실을 예리하게 추적한다. 어떻게 아부 가립 사태와 그 이후의 은폐까지 남을 정도로 ‘미국적 가치’가 처참하게 몰락하였는가?

아부 가립에서 촬영된 악명 높은 사진들은 미군의 비윤리적인 폭력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진이 곧 현실 속의 처부를 모두 드러낸다는 착각을 낳았다. <가늘고 푸른 선> 등을 통해 ‘진실’의 사회학을 탐구해 온 인터뷰의 마스터 모리스 감독이 이 사진들의 맥락을 탐색하며 펼친 2년의 여정은 사진의 딜레마를 증폭시킨다.

모리스 감독은 ‘인터로트론(Interrortron)’이라는 장치를 통해 발화자의 시선을 관객의 시선에 일치시키는 그만의 독특한 인터뷰 방식을 개발, 활용해 왔다. 이 장치의 이름에 들어 있는 ‘테러’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가해자와 눈을 마주칠 때 발생하는 관객의 소름을 함축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리스 감독의 괴짜 장치를 관통하여 불편한 역사의 진실을, 폭력의 숨은 실체를 직시할 수 있게 될까?

3.27 [Sun], 1pm
4.4 [Mon], 7pm
CineCode Sonje

116 min.

Errol Morris' 8th feature documentary examines the context of the notorious photographs taken in Abu Gharib, showing the systematic abuse by the American military. The story is still shrouded in moral ambiguity. How could American values become so compromised that Abu Gharib and the subsequent coverup could hap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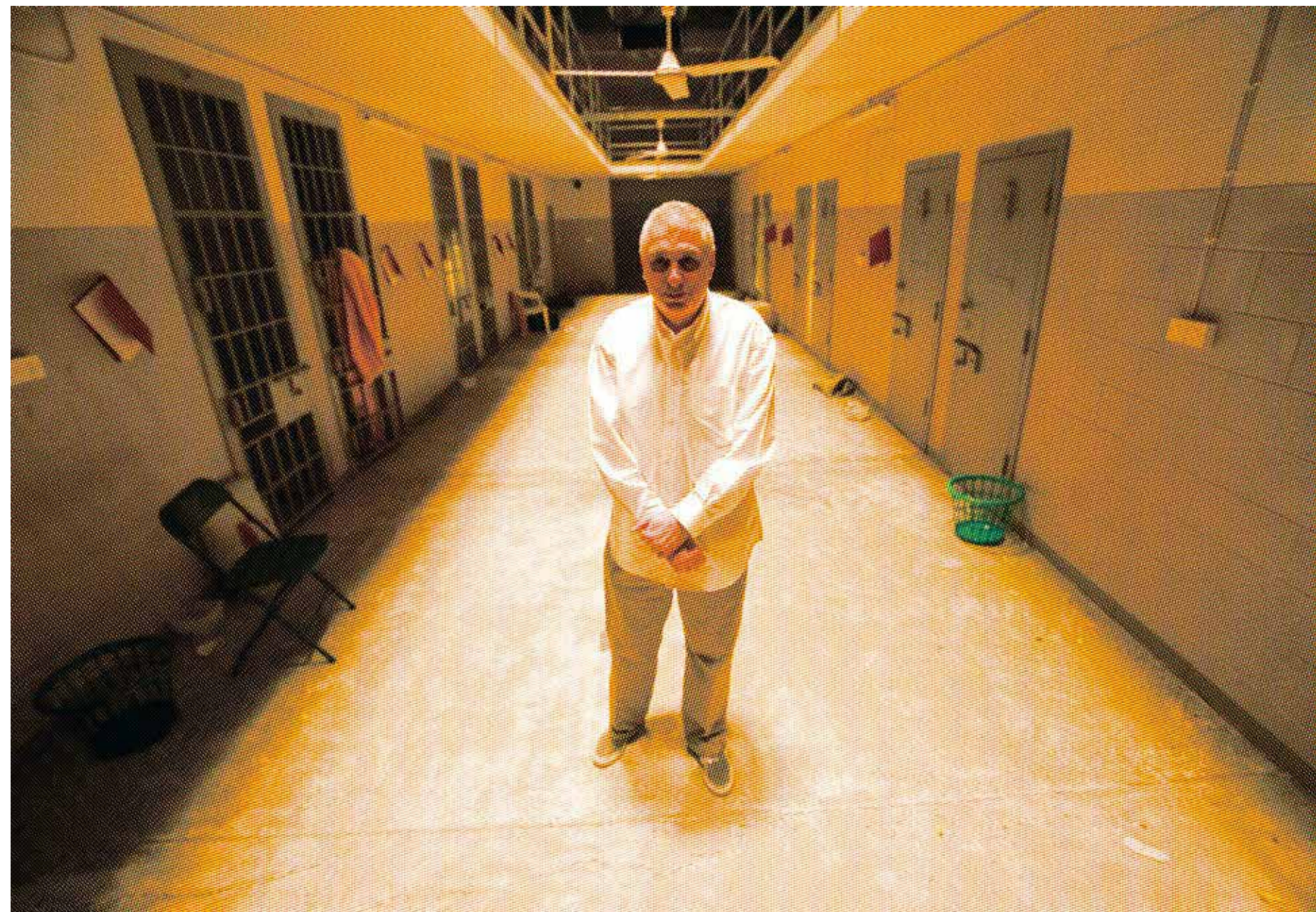


Photo © Sony Pictures / Park Circus

클레멘스
폰 베데메이어

<반대편으로부터>

4.3 [일] / 38분
4.10 [일], 11am
씨네코드 선제

지극히 일상적인 듯한 장소를 오가는 행인들, 평범하기 그지없는 풍경이나 사건들은 베를린 아티스트 클레멘스 폰 베데메이어가 활용하는 재료들이다. 아니, 다큐멘터리도 드라마도 아닌 그의 '장소특정적' 영상은 평범한 것들에 대한 무한한 의심과 성찰을 유도한다. 우연적인 것들은 정확한 의도에 따라 성립된 작위적인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에 무한한 매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 매혹을 신뢰하지 않는다. 영화는 관람자의 생리적인 반응마저도 조종한다. 영화는 언제나 권력적인 위치를 선점한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이 나의 출발점이었다. 영화를 공간과 제도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만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클레멘스 폰 베데메이어]

뮌스터에 있는 4개의 영화관 중에서도 역 바로 옆에 있는 메트로폴리스 극장은 특이한 기묘한 고풍스러움을 발산한다. 이 건물을 우연히 발견함으로써 <반대편으로부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베데메이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역과 극장은 이 지역을 도시의 중심으로 유지시키며 독특한 방식으로 서로에 연관된다. 어쩌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도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역의 정경은 여러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영화관이라는 장소에 밀접하게 닿아 있지 않을까.



Photo © Galerie Jocelyn Wolff, Paris



Clemens
von Wedemeyer

From the Opposite Side

4.3 [Sun] / 38 min.
4.10 [Sun], 11am
CineCode Sonje

Centered around the 24-hour life of Münster railway station, *From the Opposite Side* shows what lies behind the screen, or the life just outside Münster Metropolis Theatre where the audience are seated. The passionless reality where passersby and performers mingle is also a site where the boundary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collapses.

Clemens von Wedemeyer
Von Gegenüber
(*From the Opposite Side*)
35mm, 38 min, loop, 2007
Courtesy galerie Jocelyn
Wolff, Paris

TRANSLATION
Ahyoung Y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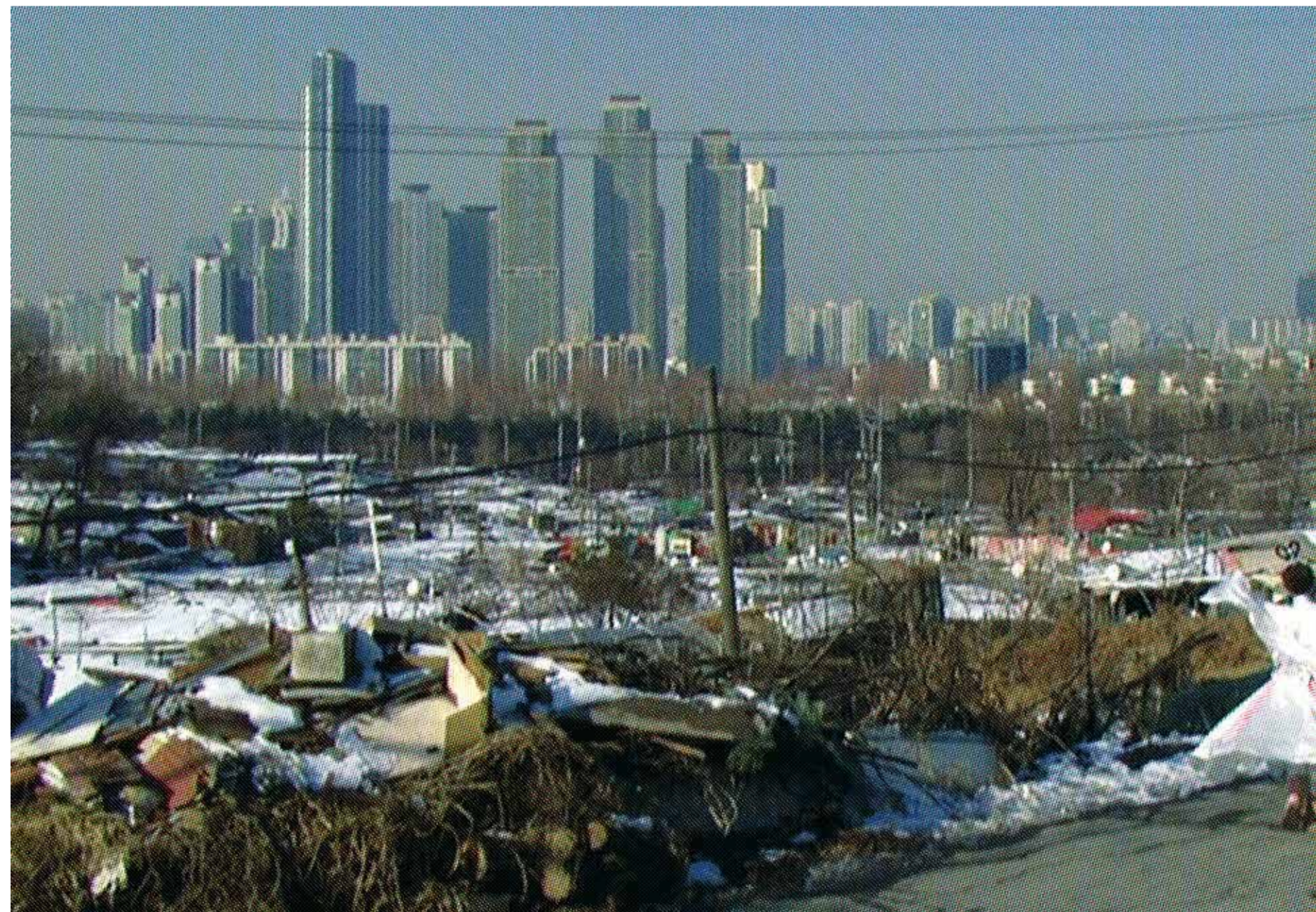
한국사의 욕망을 함축하는 강남구에 그 이름만큼이나 고색창연한 구룡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타워팰리스를 대극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무어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신화재건의 열망이 선녀를 출몰시킨다. 마을을 방문한 외부인들, 이를 카메라로 기록한 구룡의 아이들, 그리고 선녀임을 자처하는 의심스런 무용수들 간의 역학이 신화의 매개인 구전(口傳)을 통해 무대화된다.

김윤진은 몸이 처한 오늘날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념적인 작업으로 한국 춤의 동시대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제한된 공동체에서 문화적 집단 행위를 촉발시키는 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시험한다.

Unlikely located right next to the core of Kangnam, the condensed heart of all economic desires of the Korean society, is Guryong Village. Choreographer and dancer Yoon-Jin Kim searches for what gave this illegal shanty town its mythical name, literally meaning "nine dragons." The denizens' desire to revive the myth comes alive with the help of, or rather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outsiders' oral transmission.

DIRECTOR/CHOREOGRAPHER
Yoon-jin Kim
ASSISTANT CHOREOGRAPHER
So-yeon Lim
CAST
Yoon-jin Kim, Deok-hee Park,
Ji-sun Kwon, Seo-young Park,
Children at Guryong Paolo
Study Room
VIDEO DIRECTOR
Young-tae Seo
CAMERA OPERATOR
Young-min Lee
COSTUME DESIGN
Keun-chul Shin, Young-ji Coh
STORYTELLING/NARRATION
Jae-seo Jung, Dae-young Lee,
Milan Hejtmanek,
Se Hyung Oh

Photo © the artist



빌리 도르너는 '무대'라는 정형화된 장소로부터 무용을 끌어내려 거리에 재배치한다. 거리를 표류하는 무용수들은 관객을 소각하고, 관객을 도시 속의 평범한 구성들로 이끈다.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구들과 거리의 자연스런 경관은 서로를 낯설게 하고, 무용수들의 신체가 도시의 다양한 건축 환경과 유기적으로 교류한다.

퍼포머들의 움직임은 관객의 시선을 건물의 틈새와 거리의 구석으로 유도하며 도시를 생경화하는 책임감과 박진감 넘치는 여정을 이끈다. 평소 사적인 거주공간 내부에 국한되었던 개인적인 움직임들이 공적 장소에서 발전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공한다. 순식간에 형성되고 소멸되는 신체와 도시의 언캐니한 조화는 도시인으로서의 삶의 영역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갱신한다.

“<도시 공간의 신체들>은 ‘무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안무’이기는 하다. 내가 정의 내리는 ‘안무’란, 특정한 순간과 특정한 장소에 신체를 배치하는 행위다. 이 작품에는 ‘춤’ 대신 정지된 이미지와 순간들이 존재한다. 물론 ‘정지’는 되었으나, 가로등과 벽 사이에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무용수에 가까이서 다가가 보면, 자세를 필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육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중요한 것은 멀리서 조각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 장소를 발굴하는 신체적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빌리 도르너]

The city becomes the stage for this mobile array of bodily inventions to interact with everyday. An organic chain of physical interventions on the road invites the viewers to look at the familiar places in a new light.

CONCEPT/CHOREOGRAPHY
Willi Dorner
MUSIC CONCEPT/
COMPOSITION
Bernhard Lang
AUDIO-SOFTWARE-
DEVELOPMENT
AND AUDIO SUBVISION
Thomas Musil, IEM/KUC
SET DESIGN
Katharina Heistingner
CHOREOGRAPHY/
PERFORMERS
Tomas Danielis, Sebastian
Cec, Katie Green,
Werner Nigg, Annika-Lisa
Oettinghaus, Anna Reitbauer,
Esther Steinkogler, Kyoung
Soo Kim, Seunghae Kim,
Ji-hye Kim, Hye-Jin Shin,
Dawoon Im and others
PRODUCTION MANAGEMENT
Elke Hesse
PHOTOGRAPHY
Lisa Rastl

SUPPORTED BY
KT&G

A Cie. Willi Dorner
production. Co-produced
by LIN209 European Cultural
Capital City and Dance
Advance, an artistic initiative
of the Philadelphia Center
for Arts and Heritage Trusts
and administered by the
University of the Arts.

Cie. Willi Dorner is supported
by the Cultural Office of
the City of Vienna and the
Austrian Ministry of Arts and
Culture, BMUKK.

Willi Dorner would like to
thank Simon Dove and the
Arizona State University for
their help in the preparation
of this project in the
framework of a residency in
January and February 2009.



슬로베니아의 카르포 고디나는 1970년대의 저항적이고 독창적인 ‘뉴 유고 시네마’의 대표적인 감독이다. ‘블랙시네마’라고 비하되기도 했던 젊은 영화 운동 속에서, 고디나는 통찰적이면서도 아이러니하고, 발랄하면서도 도발적인 그만의 스타일을 일찌감치 숙성시켰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민감했던 정치적 문제들은 그의 세련된 역설과 자유로운 통찰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번 고디나의 단편전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재평가되고 있는 초기작들을 모아 보았다.

고디나의 영화들은 1970년대까지 자유로운 사상을 탄압했던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많은 간섭을 받아 몇몇 작품이 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정학적 상황이 완전히 바뀐 오늘날 다시 보는 이 치열한 소품들은 아방가르드의 정치적 기능, 그리고 영화를 둘러싼 담론 장치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예사롭지 않은 단서들을 제공한다.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지방의 민족적 다양성을 아이러니하게 다룬 〈우리는 건강해요〉, 베오그라드 영화제에서 토티 브라스, 밀로스 포르만 등과 함께 작업한 옴니버스 영화 〈초니아 예니가 보고 싶어〉,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반(反)군대 영화 〈사랑의 기술에 관하여, 혹은 14441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영화〉 등 1970년부터 1972년 사이에 제작된 고디나의 단편들은 예술 형식의 변역과 정치적 변역이 동일시되던 당시의 예술 철학을 곱씹어 보게 한다.

푸필리아 페르케벡의 뇌 그라탕 <i>The Gratinated Brains of Pupilija Ferkeverk</i>	11 min. 1970
우리는 건강해요 <i>Litany of Happy People</i>	15 min. 1971
사랑의 기술에 관하여, 혹은 14441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영화 <i>About the Art of Love or a Film with 14441 Frames</i>	10 min. 1972
초니아 예니가 보고 싶어 <i>I Miss Sonja Henie</i>	15 min. 1972

The Slovenian director Karpo Godina is one of the leading film directors of New Yugoslav Cinema, a unique-in-style and politically subversive cinematic movement in the 1970s, also derogatorily called Black Cinema. Godina's body of work, especially his short films, shows its own youthful and playful sentiment along with irony and political insight. In this retrospective at Festival Bo:m, his early shorts from 1968 to 1972 are shown, contemplat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avant-garde films.

DIRECTOR/
SCREENWRITER/
EDITOR/
DIRECTOR OF PHOTOGRAPHY
Karpo Godina
TRANSLATION
Jiwo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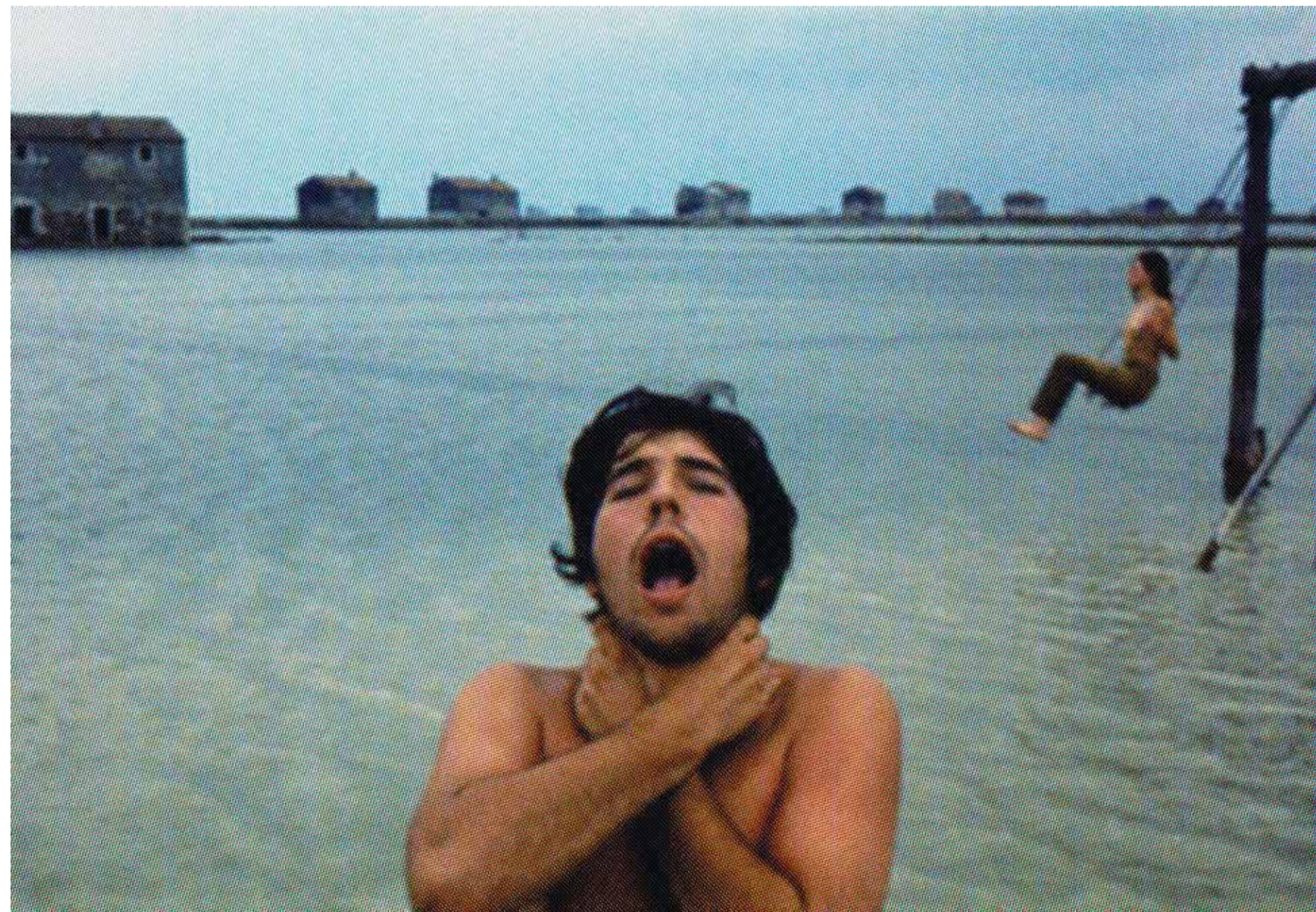


Photo © film still

3.27 [일], 3pm 40분
3.28 [월], 7pm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Jolie Ngemi &
Ula Sickle

Jolie (work-in-progress)

3.27 [Sun], 3pm 40 min.
3.28 [Mon], 7pm
Seoul Art Space
Mullae
Box Theatre

인사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댄서 줄리 응게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원초적인 신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여 춤으로 발산한다. 그 ‘신기’의 원천은 뮤직 비디오나 나이트클럽이다. 오늘날 콩고민주공화국의 젊은 세대가 가진 에너지와 의지, 창조적 잠재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는 그릇은 가장 오래된 통로, 신제이다.

“문화적 차이가 그 자체로 흥미롭다는 인식으로 다른 대륙의 이질적인 작품에 대한 관심을 낳았던 것이나 문화적 진정성의 개념에 의미를 제기하고자 한다. 오이력 춤이 얼마나 많은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어 발전했는지를 밝히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울라 시클]

〈줄리〉는 콩고민주공화국 인사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댄서이자 퍼포머 줄리 응게미의 솔로를 위해 벨기에의 안무가 울라 시클이 가세한 공동작업이다. 프랑스 출신의 뮤지션 안 르게의 라이브 사운드와 함께 진행되는 이 작품은 콩고민주공화국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대신 현재에 탄탄하게 발을 붙이고 미래를 바라본다.

Jolie takes as a point of departure dance in its most popular form, sampled from Congolese music videos and night clubs. Jolie aims to make the audience feel in a direct and immediate way the energy, determination & creative potential of today's Congolese youth, while offering a welcome feminine perspective.
[Ula Sickle]

PROPOSAL
Ula Sickle
CREATED WITH AND
PERFORMED BY
Jolie Ngemi & Yann Leguay
SOUND CONCEPT & DESIGN
Yann Leguay
PRODUCTION
Caravan Production voor
Rebecca September vzw
[Brussel, BE]
COPRODUCTION
Rencontres Chorégraphiques
Internationales de Seine-
Saint-Denis [FR], Kaaitheater
[Brussels, BE], KVS [Brussels,
BE], Festival Bo:m [Seoul,
KR]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RESIDENCIES
KVS & Centre Wallonie
Bruxelles de Kinshasa
[Kinshasa, RDC],
Seoul Art Space - Mullae
[Seoul, KR], Kaaitheater
[Brussel, BE], Pianofabriek
kunstenwerkplaats
[Brussel, BE]

Photo © Ula Sickle



〈엑스트라스〉는 공연에 대한 공연 즉, 메타 공연이자 일종의 목록화 (아카이빙) 프로젝트이다. 2011년 4월 현재 공연중인 대학로 극장의 각 장르들의 퍼포머 15명을 동시에 무대 위에 올림으로써 목록화 한다. 대학로-연극-연기자 들의 유형은 유형학적 다큐멘테이션의 충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20종류의 스토리텔링을 창발한다.

현재 대학로에서 주로 저녁시간 공연을 하는 실제 15명의 퍼포머(연극, 뮤지컬, 무용, 마임, 현대무용 등) 들을 섭외 하여 낮시간에 무대에서 공연하도록 하는 일종의 '재활용 공연'이라 할 것이다.

이들 15명 배우들의 이야기(개인적 또는 공연)를 유형학적으로 분석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들 15명이 저녁시간에 공연할 연극의 움직임, 연기, 춤, 비언어적 소리(비명, 신음, 울음 등), 제스처 및 의상들을 유형학적으로 분류하고 결합한다.

본 공연은 15명 배우들이 저녁에 공연하게 될 실제 공연, 이야기, 움직임, 의상 등을 그대로 부분별로 가져와서 새롭게 구성된다. 그 구성은 15명 배우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들의 공연에서 모두 비롯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홍성민]

Extras from actual theatrical productions taking place in Daehak-ro gather around to make one composite play, *EXTRAS*. Disjunctive and incoherent collage of their actual lines, gestures, movements, dance, non-verbal sounds and costumes become the archival sampling of today's Korean theater. The types of 'theater' 'performers' of 'Daehak-ro' reveal the levels of typological documentation and at the same time create 15 different types of storytelling. [Sungmin Hong]

CONCEPT/DIRECTOR
Sungmin Hong
ASSISTANT DIRECTOR
Sungsoo Han
CAST
Yong-wan Koo, Na-rae Kim,
Min-jung Kim, Young-jin Kim,
Jun-tae Kim, Ji-hyun Kim,
Tae-mun Kim, Mun-young
Park, Seung-won Seo,
Suk-bae Son, Sun-hee Shin,
Jae-hee Yoo, Saeromi Lee,
In-ho Lee, Han-gyul Cho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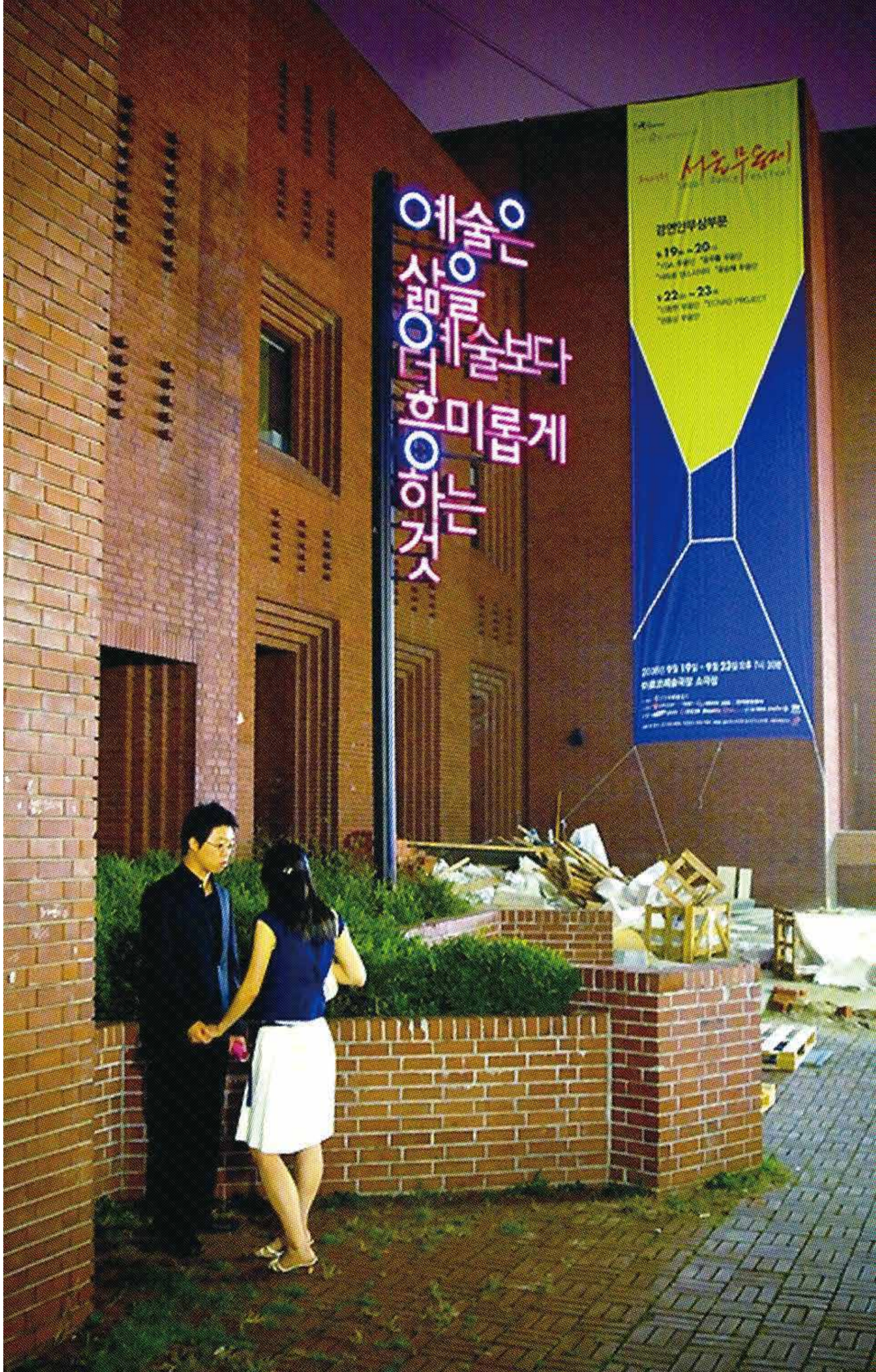


Photo © unknown

페스티벌 봄 센터

페스티벌 봄 기간
평일: 11:30am~2am
주말: 11:30am~3am
스페이스 골
이태원에 위치한 스페이스 골은 페스티벌 기간 중 페스티벌 봄 센터로 활용된다. 공연 후 아티스트, 관객, 페스티벌 기획자 등 모두가 만나서 대학의 장이 펼쳐질 곳이다.

토시키 오카다 워크숍

〈확률과 움직임의 관계에 대한 탐구〉
3.25 [금], 3.27 [일]~3.30 [수], 1~5pm
국립극단 스튜디오 둘
공동 주최:
(재)국립극단
페스티벌 봄
한일연극교류협의회

국제 심포지엄

〈다원예술의 수용과 공간활용 방안〉
발제자:
프리 라이젠, 한스-페터 리처, 김성희, 정연두 외
4.5 [화], 2pm
대학로 예술가의 집
공동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페스티벌 봄

페스티벌 포럼

르네 폴레스슈
패널: 장은수, 최영주
3.23 [수] 8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공동 주최: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페스티벌 봄

Toshiki Okada's Workshop

The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ches and Movements
National Theater Company Studio #2
3.25 [Fri], 3.27 [Sun]~30 [Wed]
1~5pm
Co-organized by: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Inc.
Festival Bo:m
Korea-Japan Theatre Exchange Council

International Symposium

Reception of Interdisciplinary Art and Space Management
Speakers:
Frie Leysen, Hans-Peter Litscher, Seong Hee Kim, Yeondoo Jung and others
Artist House (Arts Council Korea)
4.5 [Tue], 2pm
Co-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Festival Bo:m

Festival Forum

René Pollesch
3.23 Wed After the 8pm performance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Co-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
Festival Bo:m

작가와의 대화

토시키 오카다
진행: 김남수, 김애주
3.26 [토] 3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자비에 르 루와

진행: 서연석
4.1 [금] 8pm 공연 이후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디르크 플라이쉬만

진행: 김계중
4.3 [일] 3pm 공연 이후
아르케예술극장 대극장

김왕

진행: 오진아
4.10 [일] 5pm 공연 이후
서강대학교 메리홀 소극장

Artist Talk

Toshiki Okada
Moderators: Nam Soo Kim, Haeju Kim
3.26 [Sat]
After the 3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Xavier Le Roy

Moderator: Hyun-Suk Seo
4.1 [Fri]
After the 8pm performance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Dirk Fleischmann

Moderator: Gye-joong Kim
4.3 [Sun]
After the 3pm performance
Arko Arts Theater
Main Hall

Hwang Kim

Moderator: Jin Ha Oh
4.10 [Sun]
After the 5pm performance
Sogang Univ. Mary Hall
Small Theatre

Festival Bo:m Center

Space gguull
Opening Hours:
Open during the festival
Weekdays: 11:30am ~ 2am
Weekends: 11:30am ~ 3am
Space gguull, located in Itaewon, is the Festival Bo:m Center during the festival, which will be the space for ope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s among all artists, audience members, producers, staff, etc.

Toshiki Okada's Workshop

The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ches and Movements
National Theater Company Studio #2
3.25 [Fri], 3.27 [Sun]~30 [Wed]
1~5pm
Co-organized by: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Inc.
Festival Bo:m
Korea-Japan Theatre Exchange Council

International Symposium

Reception of Interdisciplinary Art and Space Management
Speakers:
Frie Leysen, Hans-Peter Litscher, Seong Hee Kim, Yeondoo Jung and others
Artist House (Arts Council Korea)
4.5 [Tue], 2pm
Co-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Festival Bo:m

Festival Forum

René Pollesch
3.23 Wed After the 8pm performance
Sogang Univ. Mary Hall
Great Theatre
Co-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atre Critics
Festival Bo:m

주최
페스티벌 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협찬
KT&G
BMW
커피빈

협력기관
(재)국립극단
문래예술공장
씨네코드 선재
주한독일문화원
주한프랑스대사관
프랑스 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한스위스대사관

Festival Bo:m 2011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 Festival
22 March – 17 April 2011

Organized by
Festival Bo:m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Sponsored by
KT&G
BMW
Coffee Bean Korea

Cooperated with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Inc.
Seoul Art Space Mullae
CineCode Sonje
Goethe-Institut Korea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Centre Culturel Français
The Japan Foundation, Seoul
Embassy of Switzerland in Korea



디렉터
김성희
텍스트
서연석

사무국장
조화연
프로덕션 매니저
이경우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정소리

재무
이영라, 이은정

티켓
김선미

홍보 마케팅 팀장
성민경

홍보 마케팅 디자인
장지예, 조소은

홍보 마케팅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성용희, 신진영

영상 아카이브
정두리

Director
Kim, Seong Hee
Text
Seo, Hyun-Suk

Director Assistant
Cho, Hwa Yeon
Production Manager
Lee, Kathy Kyunghoo
Production Coordinator
Jung, So Ree

Accounting
Lee, Young-ra

Tickets
Kim, Sun Mi

PR/Marketing Manager
Sung, Min Kyung

PR/Marketing Design
Jang, Jihe

PR/Marketing
Cho, So Youn
Lee, Mi Ji

Online Communication
Sung, Yonghee
Shin, Jinyoung

Video Archiving
Jung, Doori

테크니컬 디렉터
김지명
무대 감독
이주연, 이경수, 송희정, 안은영
무대 제작
김동경 (TAF 무대미술)

음향 감독
오영훈

조명 감독
이유진

영상 감독
우기하

디자인
슬기와 민

자원 봉사
김범준, 이영진, 김진유, 김하나, 김봄이 외

서버 지원
(주)컬처닷컴

Technical Director
Kim, Ji Myung
Stage Manager
Joshep Joo Hyun Lee
Lee, Kyung Soo
Song, Hijung
Han, Eunyong

Set & Stage
Kim, Dong-Kyung
(TAF Scenograph Studio)
Sound Supervisor
Oh, Young Hoon

Lighting Supervisor
Lee, Yu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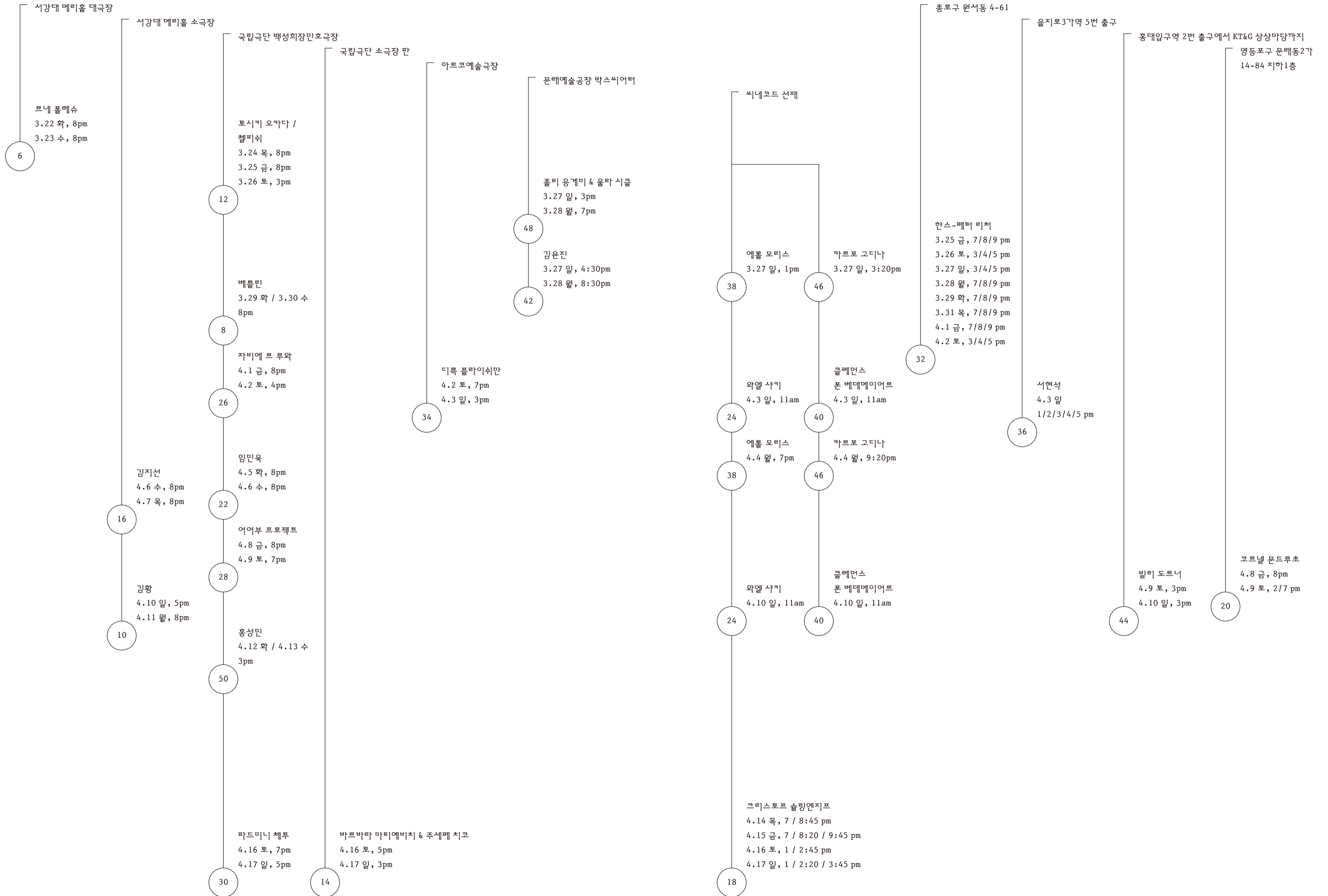
Video Supervisor
Woo, Ki Ha

Design
Sulki and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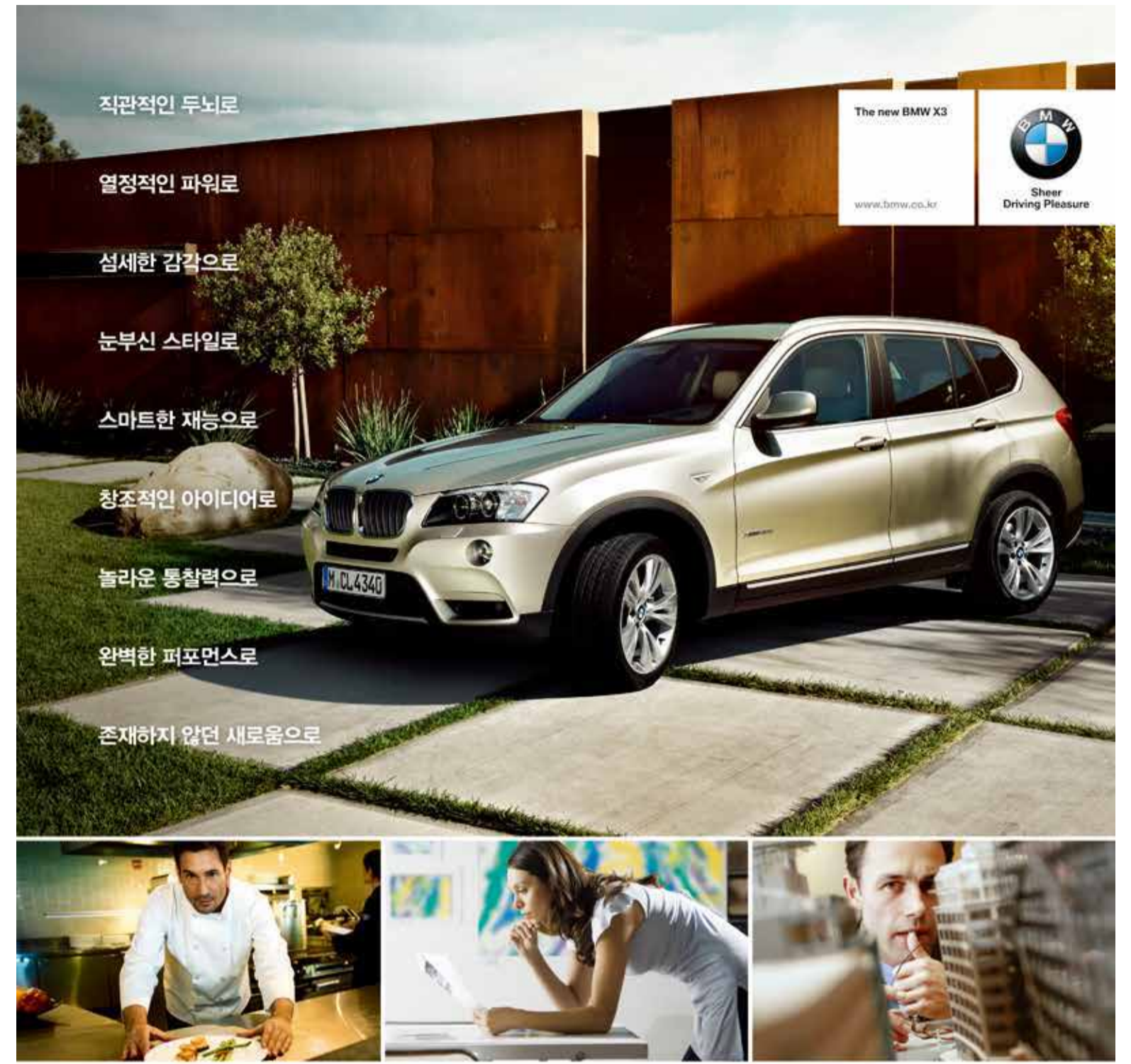
Volunteer
Kim, Bum Jun
Lee, Young Jin

Kim, Jin Yu
Kim, Ha Na
Kim, Bom Ie and others

Server
Culture and Partners Inc.



R : 50,000 won S : 40,000 won	르네 폴레슈 René Pollesch	베를린 Berlin	토시키 오카다 / 첼피쉬 Toshiki Okada / chelfitsch	코르넬 몬드루초 Kornél Mundruczó
	6	8	12	20
30,000 won	자비에 르 루와 Xavier Le Roy	어어부 프로젝트 UHUHBOO Project	파드미니 체투 Padmini Chettur	한스-페터 리처 Hans-Peter Litscher
	26	28	30	32
20,000 won	김황 Hwang Kim	바르바라 마티예비치 & 주세페 치코 Barbara Matijević & Giuseppe Chico	김지선 Ji-Sun Kim	임민욱 Minouk Lim
	10	14	16	22
10,000 won	서현석 Hyun-Suk Seo	김윤진 Yoon-Jin Kim	줄리 응게미 & 울라 시글 Jolie Ngemi & Ula Sickle	홍성민 Sungmin Hong
	36	42	48	50
* 8,000 won	크리스토프 슐링엔지프 Christoph Schlingensief	와엘 샤키 Wael Shawky	클레멘스 폰 베데메이어 Clemens von Wedemeyer	에롤 모리스 Errol Morris
	18	24 +	40	38
Free	빌리 도르너 Willi Dorner	패키지 할인 4장 이상 구매시 30% 할인 6장 이상 구매시 40% 할인 8장 이상 구매시 50% 할인 * 영화는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티켓/공연 문의 페스티벌 볼 사무국 02 730 9616-7 www.festivalbom.org festivalbom@gmail.com
	44			



JOY가 당신의 지금을 완성한다.

JOY는 언제나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이든, 어디를 향하든, 무엇을 꿈꾸든, 늘 최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한 BMW 뉴 X3. 미학적인 디자인과 더욱 편안한 실내공간은 럭셔리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BMW 이퍼선티다이내믹스와 강력한 xDrive가 철도하게 조화된 퍼포먼스는 당신의 드라이빙에 최고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움으로, 완벽하게 당신을 만족시키는 BMW 뉴 X3. JOY가 당신의 특별함을 더욱 가치있게 완성합니다.

JOY IS THE NEW BMW X3.
www.facebook.com/BMWKorea

BMW EfficientDynamics
 xDrive20d | 17.2 km/l | 184hp

BMW 코리아(주) (02) 7309-2200 | BMW 공식 홈페이지 www.bmw.co.kr
 일부공인 표준연비 및 평균 The new BMW X3 xDrive20d (47) 17.2km/l, 공차중량 1,800kg, 좌중 17.2km/l, CO2 156g/km, 100km 이하 연비는 표준연비로 인한 편차로 도표상과 다를 수 있음. 차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본 광고 이미지는 실제 차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색상 및 차이는 실제 차량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02 3704 9500
www.ntck.or.kr

국립극단 소극장 판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
02 3704 9500
www.ntck.or.kr

서강대학교 메리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02 705 8743
maryhall.sogang.ac.kr

아르코예술극장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02 760 4877
www.hanpac.or.kr

문래예술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9-1
02 2676 4300
mullae.seoulartspace.or.kr

씨네코드 선재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44-2
02 730 3200
artsonje.org

문래동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84 지하1층

원서동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4-61

을지로
을지로3가역 5번 출구

KT&G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KT&G 상삼마당까지

스페이스 '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3-30
070 4127 6468

Venues

National Theater Company
Baik-Chang Theater
1 Sogye-dong, Yongsan-gu, Seoul
02 3704 9500
www.ntck.or.kr

National Theater Company
NTC Studio Pan
1 Sogye-dong, Yongsan-gu, Seoul
02 3704 9500
www.ntck.or.kr

Sogang Univ. Mary Hall
1-1 Shinsu-dong, Mapo-gu, Seoul
02 705 8743
maryhall.sogang.ac.kr

Arko Arts Theater
1-130 Dongsung-dong, Jongno-gu, Seoul
02 760 4877
www.hanpac.or.kr

Seoul Art Space Mullae
29-1 Mullae-dong 1-ga,
Youngdeungpo-gu, Seoul
02 2676 4300
mullae.seoulartspace.or.kr

CineCode Sonje
144-2 Sohgyuk-dong, Jongno-gu, Seoul
02 730 3200
artsonje.org

Mullae-dong
B1 14-84 Mullae-dong 2-ga,
Youngdeungpo-gu, Seoul

Wonsuh-dong
4-61 Wonsuh-dong Jongno-gu, Seoul

Euljiro
Euljiro 3-ga Subway Station Exit 5

KT&G
From Hongik Univ. Subway Station Exit 2
to KT&G Sangsangmadang

Space gguull
683-30 Hannam-dong Yongsan-gu, Seoul
070 4127 6468



FESTIVAL
BO*M

FESTIVAL
BO*M

FESTIVAL
BO*M

SEOUL

VAL

17

VAL
M

SEOUL
2011
2-4*17

FESTIVAL
BO*M

SEOUL
2011
3*22-4*17